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열 개의 길, 칠십 다섯 개의 만남



문화유산
관광
방문
관광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방문
관광

가이드북 커버를 펼치시면 나만의 문화유산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방문한 문화유산을 이어 나만의 문화유산 길을 만들어 보세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 또는 'K-Culture'는

단순히 지금의 시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켜켜이 쌓아온 문화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선조들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문화유산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한국에도 수천 년에 걸쳐 남겨진 문화의 흔적들이
지금의 한국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문화유산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즐기고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으로,
또 나만의 특별한 장소로 문화유산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바람을 담았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홈페이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열 개의 길, 칠십 다섯 개의 만남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문화유산과 함께 진정한 한국을 느끼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자

- 3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 6 대한민국 세계유산
- 156 찾아보기

24 가야 문명의 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대성동 고분군
김해 수로왕릉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36 관동 풍류의 길

강릉 경포대
강릉 선교장
강릉 오죽헌
속초 신흥사
양양 낙산사
평창 월정사

46 백제 고도의 길

공주 공산성
공주 마곡사
논산 돈암서원
부여 나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

64 산사의 길

공주 마곡사
보은 범주사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

72 서원의 길

경주 옥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함양 남계서원

80 선사 지질의 길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호로고루
철원 고석정
포천 비둘기낭 폭포
포천아트밸리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포천 화적연

92 설화와 자연의 길

제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제주 만장굴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 선흘리 기문오름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138 천년 정신의 길

경주 계림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 월성
안동 도산서원
안동 봉정사
안동 하회마을

104 소릿길 1

고창관소리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남원 광한루원
필봉농악전수관

112 소릿길 2

국립남도국악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우수영국민관광지

120 왕가의 길 1

남한산성
수원 화성
종묘
창덕궁
화성 융릉과 건릉

132 왕가의 길 2

강화 고인돌 유적
강화 전등사
경복궁
김포 장릉
종묘



대한민국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 BY-SA 3.0 IGO)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연도 :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의 사찰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연속유산이란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유산지를 포함하는 문화/자연 유산을 의미한다. ‘살아 있는 불교 유산’인 산사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의 사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찰은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 모두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 의례, 강학,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토착 신앙도 포용하고 있다.

산사는 경사가 완만한 산기슭에 자리 잡아 주변의 숲과 시냇물 등 자연으로 사찰의 경계를 삼는 ‘개방형’ 구조를 보인다. 또 자연환경에 순응해 최소 규모로 축대를 쌓고 사찰을 지었기에 건물의 배치가 비대칭적이고 비정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찰의 영역을 넓힐 때에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다.

산사의 길 p.64



종묘 등재연도 : 1995년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종묘는 왕실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여주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급박하게 피난길에 나서면서 종묘에서 위패들을 모시고 가기도 했다.

종묘는 유교문화의 조상숭배 사상과 제사의례를 바탕으로 왕실의 주도 아래 엄격한 형식에 따라 지어졌다. 특히 중심 건물인 정전은 옆으로 길게 펼쳐진 1층 건물로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준다. 지붕의 길이가 100미터가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건물로도 꼽히는데, 이처럼 정전이 매우 길고 건물 앞마당과 일체를 이루는 건축물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종묘는 현재에도 조선시대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종묘제례'라 불리는 제사의례가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유교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단아하면서도 신성한 건축물로서 현재까지도 제례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또한, '종묘제례'와 이때 연주되는 음악인 '종묘제례악'은 세계유산이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며 이어져 내려온 '무형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왕가의 길 1·2

종묘 p.127

조선왕릉 등재연도 : 2009년

조선왕릉은 519년간 이어져 온 조선왕조의 왕과 왕비가 모셔진 무덤이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42기의 왕릉이 조성되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은 이 가운데 북한에 있는 2개 능(제릉과 후릉)을 제외한 40기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왕조가 배출한 27명의 왕 중에서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왕릉은 서울 시내와 인접 지역 등 18곳에 흩어져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왕릉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장릉(단종의 무덤)이다.

조선시대에 왕릉은 선대왕과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나타내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경건한 공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조의 넋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도 해냈다. 조선왕릉은 한반도에서 5,000여 년에 걸쳐 조성돼 온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중시하는 풍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능 위주의 부속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선왕릉은 유교문화의 맥락에서 독특하고 의미 있는 조선의 장례 전통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규범화된 제례 의식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 2009년 조선왕릉을 세계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왕가의 길 1·2

화성 용릉과 건릉 p.130

김포 장릉 p.135



사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사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남한산성 등재연도 : 2014년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유사시를 대비해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으로, 다른 나라의 침입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산성이라는 점에서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고, 아직까지 대를 이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 성곽 안쪽에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이 17세기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공학 기술이 집대성된 산성으로서 한국의 산성 설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점,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왕가의 길 1

남한산성 p. 124



수원 화성 등재연도 : 1997년

수원 화성은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성곽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다. 당시 발달한 실학사상은 화성을 쌓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의 성곽을 면밀히 연구해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독특한 성곽의 양식’을 결정했다. 특히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규장각의 문신 정약용이 고안해 낸 거중기와 녹로(도르레 기구)를 사용해 큰 석재를 옮기고 쌓은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성은 군사, 행정,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춘 성곽도시로서 18세기 조선 사회의 변명과 사회 변화, 기술 발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성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왕가의 길 1

수원 화성 p. 128



창덕궁

등재연도 : 1997년

창덕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로, '창덕'이란 '덕의 근본을 밝혀 창성하랴'는 뜻이다. 창덕궁은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왕조의 유교 이념이 적절하게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건축과 조경이 고도의 조화를 표출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을 이용해 건물을 세운 까닭에 궁궐 건축의 전형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히 후원의 아름다운 조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창덕궁이 보여주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과 그 배경이 되는 풍수지리 사상과 유교 사상, 그리고 자연 지형을 존중한 조경 등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왕가의 길 1
창덕궁 p. 125



해인사 장경판전

등재연도 : 1995년

경남 합천의 가야산에 위치한 해인사는 13세기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이 이곳에 봉안돼 있기 때문에 '법보 사찰'로 불린다. 그런데, 이 대장경 목판을 500년이 넘도록 훌륭히 지켜준 특별한 목조건물이 있다.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건립된 세계 유일의 건축물인 '장경판전'이 바로 그것이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창건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장경> 자체도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판전 또한 매우 아름답고 탁월한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크다. 특히 자연적으로 환기는 물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도록 과학적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배치한 점은 지금 봐도 놀랍다. 이 덕분에 귀중한 목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이러한 건축적, 과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세계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산사의 길
합천 해인사 p. 70



사진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등재연도 : 2000년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무덤의 일종이다. 권력을 지녔던 중요 인물의 장례와 공동체의 종교적 의식에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 중 고창과 화순, 강화 등지를 중심으로 한국에만 2만 4,000기 정도가 또 한반도 전체로 보면 약 5만 기가 분포하고 있다고 하니 그 밀집도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과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세계의 어떤 다른 유적보다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왕가의 길 2
강화 고인돌 유적 p. 135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한국의 역사마을 :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마을

등재연도 : 2010년

하회와 양동의 경우 대표적인 씨족 마을의 사례로서, 마을의 입지와 가옥의 전통에서 엄격한 유교의 예법과 이상이 잘 드러나 있는 점과 양반과 평민의 가옥들이 배치된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 한반도 발전의 중요한 기틀이 된 조선왕조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천년 정신의 길
안동 하회마을 p. 152

한국의 서원

등재연도 : 2019년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다.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자연감상과 심신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원에서 누마루 양식의 개방적인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인이 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을 배향하고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서원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의 원칙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특출한 증거이다.

서원의 길 p. 72



석굴암 · 불국사 등재연도 : 1995년

경주에 위치한 석굴암과 불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지어진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다듬어 돔의 형태로 쌓아 올린 석굴 사원으로 주실(오름이 되는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본존불상이 안치되고 그 주위로 38구의 불상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불국사는 돌을 다듬어 만든 석조 구조물과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 고대 불교건축의 정수로 평가된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옛 신라인들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그 빼어난 가치를 인정받았다.

천년 정신의 길
경주 석굴암, 경주 불국사 p.144



사진 © 한국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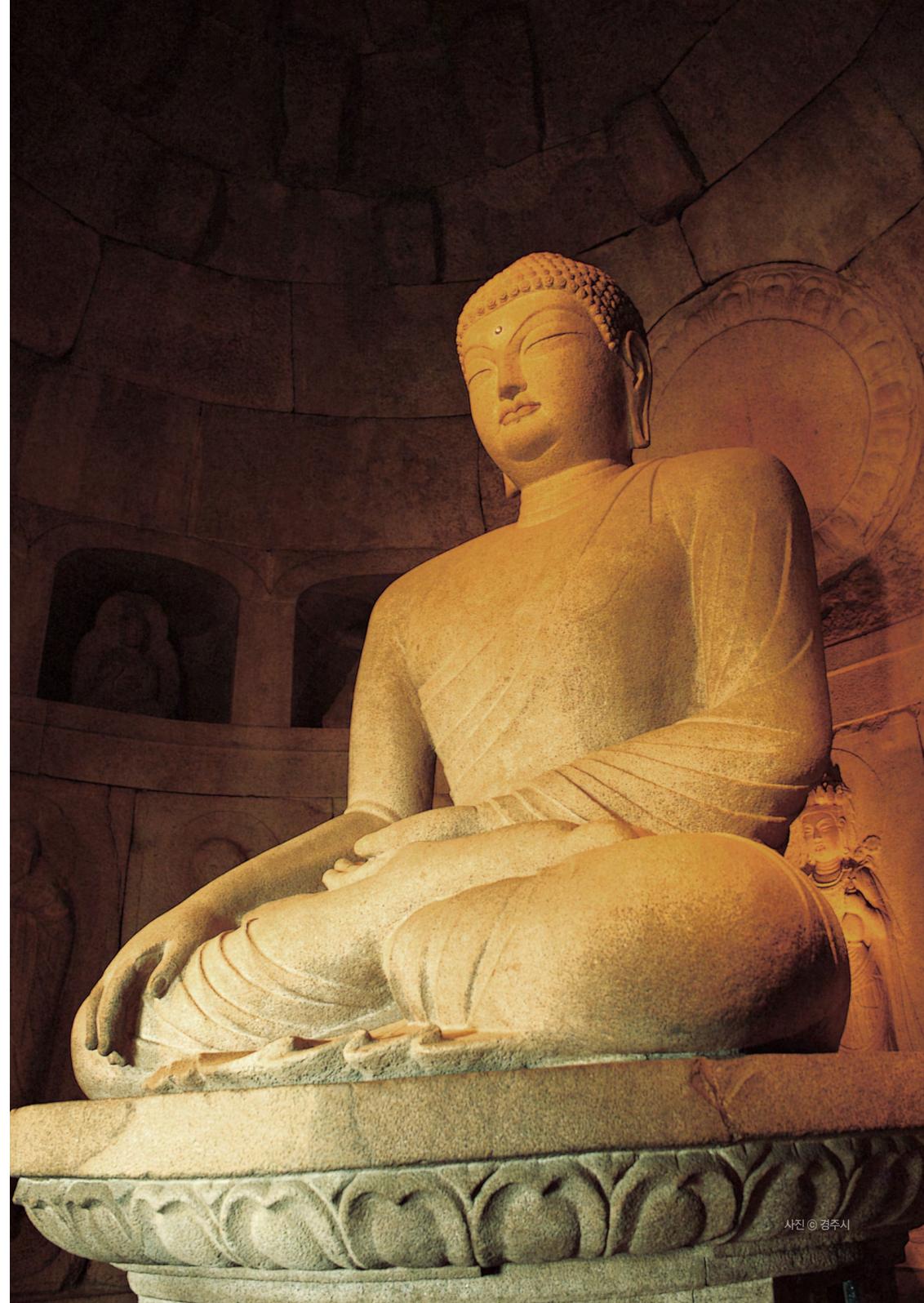


사진 © 경주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재연도 :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불교 유적, 왕경(王京)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교토, 나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천 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뛰어난 유산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라의 생활문화를 비롯해 한반도 내에서 불교 건축이 발전해 온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유물과 유적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천년 정신의 길
경주역사유적지구 p. 147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연도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700여 년간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국가 중 하나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3개 시·군의 8곳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군, 건축물과 석탑을 통해 한국의 고대왕국 백제의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준다. 이 모든 요소는 동 유산이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중국·일본 고대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고대 도성의 필수 요소인 산성, 왕궁지, 외곽성, 왕릉, 불교사찰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전부가 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유산의 모든 요소들은 각각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세 개의 도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고대 수도이다.

백제 고도의 길 p. 46



사진 © 경주시



사진 © 한국문화재단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재연도 :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 아래로 다양한 모양의 암석과 폭포를 품고 있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오래전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솟아 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성산일출봉, 그리고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동굴의 천장과 바닥을 화려하게 장식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꼽히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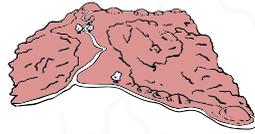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화산섬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제주도는 세계유산이면서 동시에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며, 종의 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설화와 자연의 길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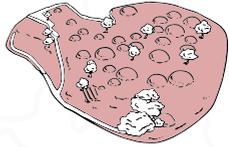


가야 문명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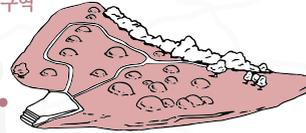
고령 · 고성 · 김해 · 남원 · 창녕 · 함안 · 함천



고령 장기리 암각화 ● 01
고령
지산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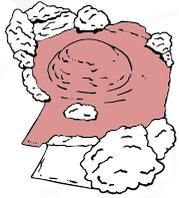


09
함천 옥전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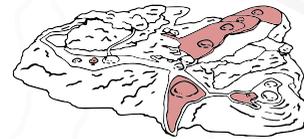


창녕 우포읍
천연보호구역 ●
신라 진흥왕 척경비 ●
07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창녕 계성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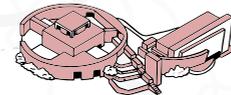


0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08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군북지석묘군 ●



김해 양동리 고분군 ●

● 김해 은하사 대웅전

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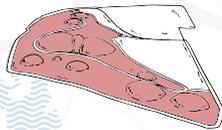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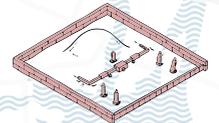
03 국립김해박물관

04 김해 대성동 고분군

05 김해 수로왕릉



부산광역시



02 고성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참 만담 참문화유신

대구광역시

경주국립공원

함양군

밀양시

지리산

함안군

진주시

하동군

거제시

01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지배계층의 고분 사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가야의 돌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이자 사적이다. 고령지역에는 대체로 면 단위마다 봉토분이 밀집한 고분군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도 지산동 고분군은 중심 고분군이다. 대량의 토기와 함께 금동관, 갑옷과 투구, 긴 칼 및 꾸미개류가 출토되고 있어 4~6세기 경에 축조된 대가야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만으로 볼 때 지산동 고분군 내 최대형, 최고 위계의 고분은 44호 분과 45호 분이다. 하나의 봉토 안에 주·부실이 나란히 놓인 구멍식 돌방무덤에 주인공이 안치되었고 그 주위로 주인공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순장된 돌덧널무덤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순장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형분의 피장자는 5세기 말 이전 대가야국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부장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많은 양의 토기류와 함께 금제 귀고리, 영부 점선형 말뚝 드리개와 투구를 비롯한 무기류도 출토되었다. 대가야의 주축이 된 세력의 발굴조사자료는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23-1

02

고성 송학동 고분군

소가야 문화를 품은 왕릉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고성읍 북쪽의 무기산 일대에 위치한 가야 시대 고분군으로 7기 가량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유적이다. 이 고분이 자리한 곳은 고성군 소가야의 옛 터로 알려져 있다. 모든 고분의 봉토는 인공으로 다져 쌓아 올려졌으며 언덕 위를 평평하게 고른 뒤 한 커씩 다져가며 쌓아 올린 판축의 기술이 확인되고 있다. 토기류와 금동 귀걸이, 마구, 금동 장식 큰칼, 청동계 높은 잔,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대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경에 조성되었던 소가야의 중심 고분으로 지배자 집단 또는 왕릉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소가야 왕릉의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송학동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Tip 선사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소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고성박물관**이 송학동 고분군과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고분군 내에 지석묘의 7개 구멍이 복두칠성처럼 보인다는 칠성바위 고인들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03 국립김해박물관

03

국립김해박물관

우리나라 대표 가야사 특화 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 문화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건립된 고고학 전문 박물관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기 위한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이며 우리나라 대표 가야사 특화 박물관이다. 김해박물관은 선사 시대와 변한, 전기 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 유물이 총망라된 전시실과 각 지역별로 형성된 가야 문화의 독창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전시실로 구성되어 약 1,3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가야 문화상과 유물의 용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 가야와 가야 사람들을 주제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Tip 국립김해박물관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안내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01 고령 지산동 고분군 | 사진 © 한국문화재단



02 고성 송학동 고분군 | 사진 © 고성군

04

김해 대성동 고분군

4세기 전후 한국 고대사의 증거 사적

경남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3~5세기 무렵의 금관가야 시대 유적인 대성동 고분군은 밤을 갈다가 유구 일부가 노출됨으로써 1990년~1991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차에서는 4세기 말~5세기 초 본가야(금관가야)의 왕급 무덤 2기를 2차에서는 3세기 후반~5세기 전반에 이르는 다수의 왕후묘가 포함된 37기의 각종 분묘를 발굴·조사하여 한국 고대사에서 공백으로 남은 4세기 전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한편 20기의 덧널무덤들은 연대 추이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특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 덧널무덤이 한대 덧널무덤, 낙랑 덧널무덤, 남시베리아의 파지리크고분, 몽골 북부의 노인올라고분 등과 같은 북방 유목 민족의 덧널무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26

Tip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금관가야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 있는 대성동 고분군에 위치한 가야 왕도 김해의 명소이다. 가야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폭넓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과 시각자료, 체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료 설명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05

김해 수로왕릉

금관가야의 시작을 품은 왕릉 사적

김해 수로왕릉은 경남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사적이다. 수로왕은 42년 가락국의 시조로 왕위에 올랐으며, 김해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서기 48년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았다. 김해 수로왕릉은 원형 토분으로 봉분에 다른 시설은 없었으나 조선 시대 말부터 전각들이 하나 둘 세워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1580년(선조 13년)에 영남 관찰사 허엽이 능을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하였으며, 능의 경내에는 수로왕, 수로왕비의 신위를 모신 숭선전을 비롯하여 안향각, 전사청, 제기고 등 여러 건물과 신도비, 공적비 등 석조물이 있다.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Tip 8월에 김해 수로왕릉을 방문하면 맥문둥과 배롱나무(백일홍), 능소화 꽃이 민개하여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04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진 © 한국문화재단

0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백제와 가야의 고대문화, 사적

인월면 유곡리 성내 마을과 아영면 두락리 마을 사이 산을 등지고, 동쪽으로 길쭉한 언덕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옛 무덤 터이다. 고분군은 서쪽 중앙부의 남쪽과 북쪽 두 경사면에 산재해 있는데 직경 5~6m, 높이 4m 내외의 봉분 20여 기는 개간과 도굴 등으로 그 원형을 잃고 있다. 이 고분군의 내부 석실 구조는 아직 조사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나 두락리 일대에는 돌덧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덧널무덤은 내부에서 목이 긴 향아리인 '장경호', 굽 높은 잔인 '고배' 등이 철로 만든 낫, 창, 마구재갈 등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5~6세기 경의 묘로 추정된다. 또한 가야계의 경질토기가 다량 출토되어 이 고원에 가야 시대의 주요한 공동체 거주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전북 남원시 성내길 35-4 (인월면)



05 김해 수로왕릉 | 사진 © 한국문화재단



0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사진 © 남원시

07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비사벌 가야 왕의 위엄, 사적

창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한의 12개 나라 중 하나인 불사국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창녕군 송현동 지역의 고분은 본래 크고 작은 80여 개에 이르는 수십 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거나 대부분이 논으로 개간되면서 현재는 16기만이 남아있다. 무덤 형태는 가야 시대의 형식으로, 과거에 창녕 일대가 가야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동관, 금·은장신구, 은관장식, 금동관모, 금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각종 마구류, 장식 무기류, 비늘갑옷을 비롯한 각종 철제 무기류, U자형 삽날을 비롯한 각종 농공 구류와 금속 용기류, 각종 토기류와 목기류가 교동·송현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그 양상과 형태가 거의 흡사해 5~6세기 전반의 중심 연대가 되는 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4



08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진 © 함안군

08

함안 말이산 고분군

철의 왕국 아라가야의 우수함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가야 시대 고분 유적으로서는 최대급의 규모를 자랑한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산 정상을 경계로 같은 산자락을 도항리와 말산리로 구분해 도항리 고분군과 말산리 고분군으로 나누어 2개의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1963년 우리 정부가 사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2011년에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해 2개의 고분군을 하나로 통합해 '말이산 고분군'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말이산 고분군에는 주능선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지 능선에는 대형 봉토분이, 사면부에는 중소형 고분군이 분포해 있다. 금과 은을 활용한 장신구들을 통해 지배층의 화려한 면모도 엿볼 수 있으며 아라 가야의 전성기인 5~6세기 초의 대외교류를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아라 가야를 상징하는 불꽃무늬 토기가 있어 '철의 왕국'으로 불리었던 아라 가야의 우수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Tip 말이산 고분군 근처의 함안 박물관에서는 아라 가야의 역사와 말이산 고분의 유물에 대한 전시와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09

합천 옥전 고분군

한국 고분문화의 정수, 사적

옥전 고분군은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옥전 마을에 위치한 4세기에서 6세기 전반의 가야 고분군이다. 낙동강의 한 지류인 황강변 구릉에 있는 옥전 고분군은 1,000여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0~30m의 지름을 가진 18기의 고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덧널무덤(목곽묘), 구멍식 돌덧널무덤(수혈식 석곽묘), 구멍제 앞트임식 돌방무덤(수혈제 횡구식 석실묘), 굴식 돌방무덤(황혈식 석실묘)가 조사되었다. 최고 수장급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토기류, 철제 무기류, 갑옷, 마구류, 장신구류 등의 유물이 많이 나왔으며 용봉환두대도나 철제갑옷, 금동장투구, 철제말투구 등이 발굴되어 가야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가야 문화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총오리 산성의 고구려 투구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우리나라 고분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29-1



07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사진 © 창녕군



09 합천 옥전 고분군 |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김해 양동리 고분군

해양왕국 가야 시대의 변성기 사적



사진 © 문화재청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대부터 기원 5세기에 걸쳐 형성된 고분군으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야 국가 형성기부터 발전기의 역사적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통해 각 시기별 가야 문물의 진수와 낙동강 하류 지역 가야 사회의 성장과 그 국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구야국 또는 본가야가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하여 변성한 '해양왕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2세기 후반에서 4세기까지 가야 철의 전성기에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외래 문물이 해로를 통해 직접 유입되었던 가야 시대의 변성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가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철의 생산은 동시에 가야 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철 시장의 상실로 인해 철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쇠퇴한 가야는 새롭게 부상한 신라와 백제의 압박으로 점차 쇠망하게 된다.

김해 은하사 대웅전

신어산이 품은 단아한 사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사진 © 문화재청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167

은하사는 당초에는 서림사가 있었으나 가락국 수로왕 때 장유화상이 증건하고 은하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대웅전의 불전은 다포계 양식의 맞배집으로 공사는 내외삼출목으로 되어있는데 외부처사의 윗몸에는 연꽃을 조각하였고, 내외살미 위로는 용두와 봉두를 새겨놓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은하사는 신어산을 배경으로 한 경관과 진입로의 소나무 숲이 아름다우며, 단아한 사찰의 모습이 찾는 이의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
보물

알터 마을 입구에 있는 높이 3m, 너비 6m의 암벽에 새겨진 바위그림이다. 바위그림은 암각화라고 하는데,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바람을 커다란 바위 등 성스러운 장소에 새긴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암각화는 북방 문화권과 관련된 유적으로, 우리 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사진 © 고령군

경북 고령군 아래말터길 15-5 (대가야읍)

바위그림은 동심원, 십자형, 가면 모양 등이 있다.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태양신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십자형은 전(田)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족사회의 생활권을 표현한 듯하다. 가면 모양은 머리카락과 수염 같은 털이 묘사되어 있고, 그 안에 이목구비를 파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부적과 같은 의미로 새긴 듯하다. 상징과 기호를 이용해 제단을 만들고 농경을 위해 태양신에게 소원을 빈 농경사회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사회생활 등 선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조각사와 회화사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창녕 계성 고분군

가야의 성립, 발전과 쇠퇴 과정
사적



사진 © 문화재청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368 의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창녕 계성 고분군'은 영축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사면부에 조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다. 5세기~7세기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5세기에 축조된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인 대형 고총 고분과 6~7세기에 축조된 알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석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수혈식석곽은 구덩식 돌덧널무덤으로 돌로 곱을 만들어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로 관을 수직으로 내려 놓아 안치하는 무덤이다. 이러한 축조 양식의 변화는 고분군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나타나며, 창녕 지역에서 가야의 성립, 발전과 쇠퇴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창녕 신라 진흥왕 혁거비

신라 진흥왕과 빛별가야(창녕군)
국보



사진 ©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성리 28-1번지

빛별가야(지금의 창녕군)를 신라 영토로 편입한 진흥왕이 이곳을 순시하면서 민심을 살핀 후 그 기념으로 세운 비이다. 당시 창녕군은 신라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555년(진흥왕 16년) 신라에 병합되었다. 565년에는 대야주(지금의 함천군)와 합쳐져 '비사벌군' 또는 '비사화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비는 목마산성 기슭에 있던 것을 1924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비각 안에 모셔 둔 것으로, 자연석의 앞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비문을 새기고, 그 둘레에 선으로 윤곽을 돌려놓은 모습이다. 다른 순수비와 달리 '순수관경'이라는 제목이 보이지 않아 영토 편입을 기념하여 세우는 '척경비'라 일컫고 있으나, 임금을 수행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수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대가야가 멸망하기 1년 전인 561년(진흥왕 22년)으로, 이 지역을 가야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왕의 정치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진흥왕 시기의 사실을 기록해 놓아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
천연기념물



사진 © 창녕군

경남 창녕군 이방면 대합면 일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우포늪, 목포늪, 사지포, 쪽지벌 4개의 늪으로 구성된 자연 배후습지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며, 경관이 탁월한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생물 지리적·생태학적·경관적 가치가 크다.

함안 군북지석묘군

청동기 시대의 무덤, 고인돌
경상남도 기념물



사진 © 문화재청

경남 함안군 군북면 통촌리 656-4번지 21필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지역에는 통촌리 27기, 탁대리 5기 등 많은 수의 고인돌이 무리 지어 있다. 통촌리의 고인돌 중 현재 원위치에 있는 것은 16기, 이전된 것이 10기, 매몰된 것이 1기로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중 26호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모두 398개의 알구멍(성혈 性穴)이 있는데, 이들을 서로 연결해 보면 마치 별자리를 나타낸 듯한 느낌을 준다. 알구멍을 만든 이유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풍년을 빌거나 자식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탁대리에서는 모두 5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4호 고인돌 주변은 과거 고령토를 채취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당시의 간돌갈, 붉은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관동 풍류의 길

강릉 · 속초 · 양양 · 평창



한국 진경문화의 꽃

관동팔경의 강원도는 백두대간과 동해가 빚어내는 빼어난 경치로 한국 고유 산천의 아름다움을 진경(眞景) 문화로 꽃피우게 했던 발원지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당대의 문인들은 산수, 풍경, 고사, 풍속 등을 노래와 시조로 표현하며 풍류를 즐겼다.

경포대, 선교장과 함께 역사적 인물인 신사임당과 울곡이의 생가가 있는 강릉, 관동팔경의 배경이기도 한 양양, 설악의 절경을 품은 속초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가 위치한 평창의 월정사는 남한 전체에서 산 전체가 불교 성지가 되는 유일한 곳으로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 대목장의 기술로 지어진 전통 건축물과 조선 선조 시대 가사 문학의 대가였던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의 배경이기도 한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하는 풍류의 길에서 강원도 지역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강릉 경포대
12	강릉 선교장
13	강릉 오죽헌
14	속초 신흥사
15	양양 낙산사
16	평창 월정사

관동 풍류의 길

강릉 · 속초 · 양양 · 평창



14 속초 신흥사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양양 낙산사 15



- 양양 오색리 삼층석탑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1 수산항
- 양양 하조대
- 양양 국제공항

설악산

인제군

한석산

내린천

방태산
자연휴양림

미천골
자연휴양림

방태산

구룡령

서울양양고속도로

- 평창 상원사 오대산사고

오대산



16 평창 월정사

침 만남 참 문화유산

현남면

산대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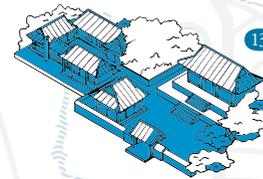
11 강릉 경포대

• 강문해변

12 강릉 선교장

초당동

13 강릉 오죽헌



송정동

- 평창 대관령양떼목장

강릉 경포대

강릉을 대표하는 명승지
보물

경포대는 고려 중기 김극기의 「경포대」라는 시와 「강릉팔경」, 고려 말 안축의 「관동팔경」, 그리고 조선 시대 송강 정철의 「관동팔경」의 하나로 지역 내외를 막론하고 시인 묵객들이 자연 풍광을 음미하며 학문을 닦고 마음을 수양했던 유서 깊은 장소이다.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과 48개의 기둥,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구성된 큰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후기의 정자이다. 누각 안 호수를 바라보는 쪽은 한 단을 더 올려 마루를 만들고, 좌우로 한 단을 더 높여 누마루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내부를 3단으로 구성한 것은 일반 누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경포호의 절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포대'라는 두 개의 현판이 있는데, 전자체 현판은 유한지의 글이고, 해서체 현판은 이익희의 글씨이며, 내부에는 울곡 이이 선생이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를 비롯하여 숙종이 직접 지은 '어제시'와 조하망의 상량문 등 수많은 명사와 시인 묵객의 글이 게시돼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경포대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고려 명종 때 문신 김극기가 남긴 팔영이다. 1326년(충숙왕 13년)에 인월사 옛 터에 세웠던 것을 1508년(중종 3년)에 강릉부사 한금이 지금의 자리에 옮겼고 여러 차례 중수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365

Tip 경포대에서 볼 수 있는 여덟 개의 경치를 일러 경포팔경이라 한다. 녹두정의 해돋이와 죽도의 밝은 달, 달맞이와 홍장암의 밤비, 강문 바닷가에 뜬 고기잡이배의 불과 초당마을에서 피워 올리는 저녁연기 등이 있다. 경포대 누대에 앉아 아름다리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들을 한 아름 안고 있는 경포호의 풍광에서 관동의 풍류를 느껴보자.

강릉 선교장

조선 시대 사대부의 살림집
국가민속문화재

한국 전통가옥을 대표하는 선교장은 99칸의 전형적인 사대부가 상류 주택이다. 1965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개인 소유의 국가 문화재로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300여 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된 전통가옥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조선 시대의 가옥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안채 주옥을 시작으로 동별당, 서별당, 사랑채 같은 사당들이 지어졌고 큰 대문을 비롯한 12대문이 있다. 이곳은 대장원을 연상케 하며, 입구에 인공 연못과 활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 하에 전체가 건축된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점차 증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꺼번에 모든 건물을 짓지 않은 까닭에 통일감과 짜임새는 조금 결여되어 있으나, 낮은 산기슭을 배경으로 독립된 건물들을 적당히 배치하고 각 건물의 구조도 소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유스럽고 너그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여러 살림살이들은 옛날 강릉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담고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Tip 선교장 해설 프로그램 및 다식 만들기, 음악 공연, 한복 체험 등의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옥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강릉 오죽헌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생가
보물

오죽헌은 역사적 인물인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생가로 조선 중종 때 건축되었다. 뒤뜰에 검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오죽헌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한국의 주택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건물로 꼽힌다. 건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 양식으로 앞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2칸은 대청이며 오른쪽 1칸에 온돌방을 들었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재들도 새부리 모양으로 빠져나오는 간결한 형태로 짜인 익공계 양식으로 꾸몄다. 지붕 합각 밑을 가리기 위하여 우물천장을 만들거나 종량과의 사이에는 대공을 받치는 등의 형식은 오래된 수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의 중심포집에서 볼 수 있는 대공의 계통을 이은 것이다. 기둥머리에 배치된 공포는 주택 건축에서 보기 드문 이익공 형식으로 그 세부 수법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익공집 건축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3139번길 24

Tip 오죽헌은 울곡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문성사와 울곡의 유품소장각인 어제각, 울곡기념관, 강릉시립박물관 및 향토민속관 등 연계하여 볼만한 관광자원이 많아 반드시 둘러봐야 할 강릉의 주요 역사 문화자원이다.



11 강릉 경포대 | 사진 © 강릉시



12 강릉 선교장 | 사진 © 강릉시



13 강릉 오죽헌 | 사진 © 강릉시

속초 신흥사

설악의 절경을 품은 사찰
강원문화재자료

신흥사는 삼국 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한 사찰로 조선 인조 때 지금의 자리에 중창되었다. 중창 당시 세 명의 스님들에게 백발 신인이 나타나 절 터를 점지해 주는 꿈을 꾸 뒤 옛 터 아래쪽에 다시 절을 세우고 신흥사라 이름 지어 흥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1995년 영동지역 불교를 새로 부흥시킨다는 염원을 담아 한자를 새 '신'자로 바꾸었다.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살,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살, '청동시루', '극락보전'보살, '경판', '보제루', '향성사지 3층 석탑'보살 및 '삼불상', '명부전', '선재루', '칠성각' 등 많은 문화재가 남아 그 가치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7세기 중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보물로 특히 불상 제작에 있어 조성화원(造成畵員)과 화성화원(畵成畵員),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어 당시 불상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극락보전 신흥사 극락보전은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소맷돌의 신태극,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로 형태, 구조, 장식 측면이 뛰어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향성사지 3층 석탑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나타나는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탑 양식과 달리 전체적인 형태가 무겁고 형식적인 장식을 둔 면이 많다. 동해인에서는 가장 북쪽의 신라 시대 석탑으로 그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다.

Tip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푸른 절이라 불리는 **신흥사**는 부지 내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위치하고 있어 설악산의 절경과 대형 청동좌불상도 관람할 수 있다.

양양 낙산사

수려한 절경의 천년 고찰
사적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오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상 머무는 곳을 이르는 '보타낙가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3대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이자 관동팔경이기로 한 낙산사는 671년(문무왕 11년) 신라 시대의 승려 의상이 창건하였고 858년(헌안왕 2년)에 중건한 이후 몇 차례 다시 세웠다. 6·25전쟁으로 소실되었지만 1953년 재건하였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광과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한 '공중사리탑'보살, '건칠관음보살좌상'보살, '칠층석탑'보살, '해수관음상', '칠관음상'과 모든 관음상이 봉안된 '보타전', 창건주인 의상대사의 유물이 봉안된 '의상기념관' 등 숭한 성보 문화재를 갖추고 있는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이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현존하는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예로 양식적으로나 세부에 있어서나 조선 시대 왕릉의 정명등과 유사성이 다분하여 양자 사이의 교류 관계, 나아가 절집 석조물과 그 밖의 석조물의 양식적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건칠관음보살좌상 낙산사 원통보전에 모셔져 있는 건칠불상의 표현수법으로 보아 고려 후반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한 조선 초기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칠층석탑 창건 당시 3층이던 것을 1467년(세조 13년)에 이르러 현재의 7층으로 조성한 탑이다. 이때 수정으로 만든 염주와 여의주를 탑 속에 봉안하였다 한다. 고려 시대의 양식을 이어 받고 있으나 전체의 조형이 더욱 간략화되었다.

Tip 부처의 예지로 **낙산에 자리한 강원도 대표 사찰**로서 경내는 수려한 절경으로 유명하다. 정철의 관동팔경 중 제4경인 '의상대'가 있다.

평창 월정사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사찰

월정사는 643년(신덕여왕 12년)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한 사찰로 산 전체가 불교 성지가 되는 곳은 남한에서 유일하다. 오대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고요하게 들어앉아 있는 월정사는 문수보살의 성산(聖山)으로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띤다.

1964년 화엄학의 대가이자 동양 사상 전반을 아우른 주석, 탄허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고 그 뒤로 만화스님과 현해스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건하여 어엿한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몇 차례의 화재와 전화로 많은 성물(聖物)과 문화재를 잃긴 하였으나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당우들 및 국보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을 비롯하여 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가 위치한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장소이다.

Tip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대산**은 입구부터 **월정사**까지 수령이 80년 이상 된 1,800여 그루의 **전나무 숲** 길이 조성되어 있다. 총 1.9Km로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생명성(대상)을 수상하였다.

14 속초 신흥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15 양양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16 평창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14 속초 신흥사 | 사진 © 속초시



15 양양 낙산사 | 사진 © 한국문화재단



16 평창 월정사 | 사진 © 문화재청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국가무형문화재



사진 © 강릉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높은 날' 또는 '신 날(신을 모시는 날)'이란 뜻의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강릉 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로, 마을을 지켜주는 대관령 산신에게 제사하고,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영, 집안의 태평을 기원한다. 단오제는 신에게 드릴 술을 담그면서 시작된다. 대관령 산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신성시하는 나무를 모시고 내려와 국사성황당을 거쳐 흥제동에 있는 국사여성황당에 모셨다가 행사 전날 저녁 영신제를 지내고 남대천 백사장에 마련된 제단에 옮겨 모심으로 강릉 단오제의 서막을 올린다. 단오장에서는 5일간 아침, 저녁으로 제를 올리고 굿을 하며 농사의 번영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제를 올린다. 이 밖에 양반과 소매각시, 장자마리, 시시딱딱이가 가면을 쓰고 말없이 관노가면극놀이를 하거나, 그네뛰기, 씨름, 농악경연대회, 창포머리 감기, 수리취떡 먹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단오 다음날에 신성시하는 나무를 태우고

서낭신을 대관령으로 모시면서 단오제는 막을 내린다. 강릉 단오제는 제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교식 의례와 무당들의 굿이 함께 거행되는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축제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난장이 크게 벌어진다. 특히 관노가면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무언극으로 대사 없이 몸짓으로 관객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 민간신앙이 결합된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축제이며,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협동정신을 볼 수 있다. 강릉 단오제는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 관동팔경과 일출 경관의 명소 명승



사진 © 한국문화재단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5-2번지 등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동해 일출경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다.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낙산사'와 낙산사 창건 당시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한 해안 암벽 위에 설치하였다는 '의상대', 의상대사가 흥련 속의 관음보살을 친견하여 설치한 '흥련암' 등 낙산사의 곳곳에 의상대사와 관련한 전설이 전하는 곳이다. '의상대'와 '흥련암'은 바닷가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노송(老松)들이 자리하고 있어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낙산사 주요 경관 요소이던 낙락장송이 2005년 강원지역의 큰 산불로 소실되어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으나, 의상대 및 흥련암 주변 해안에는 시스택(sea stack, 암석이 파도의 침식을 차별적으로 받아 만들어진 굴뚝 형태의 지형)이 발달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낙산사는 <관동십경>에 옛 모습이 잘 남아있고, <삼국유사>, <동문선>, <동문여지승람> 등의 고문헌에 많은 시인 묵객 등의 낙산사 창건 및 중수 기록과 유람기, 경관을 노래한 시문이 다수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크다.

양양 오색리 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보물



사진 ©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약수길 132 (오색리)

강원도 양양의 오색약수터에서 약 2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이다. 이곳은 성국사(城國寺)터라 전해지는데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3층 석탑 외에 또 다른 부재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넓지 않은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두고 있는 형태로 기단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으며, 위층 기단의 맨 윗돌에는 네 모서리에

빗물이 흐르는 홈을 표시하였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한 돌로 구성되었으며, 각 층의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는데, 1층 몸돌에는 사리를 두던 네모진 공간이 있다. 지붕돌은 윗부분에서 경사를 이루다가 네 귀퉁이에서 약간씩 들려 있어 탑 전체에 경쾌한 느낌을 더해준다.

양양 하조대

백사장과 기암괴석,
바위섬이 만드는 절경, 명승



사진 ©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일원 (하광정리)

양양 하조대는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해안으로, 주위의 울창한 송림과 어울려 동해안의 절경을 볼 수 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하여 이름의 앞 글자를 따 하조대라 명하였다는 등 많은 설화와 전설이 전해진다.

평창 오대산사고

조선 5대 사고 중 하나
사적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략』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던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이다. '실록'은 조선 전기에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1592)으로 전주사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 없어졌다.

1606년(선조 39년)에 다시 만들어 춘추관, 태백산, 묘향산, 강화 마니산, 오대산에 사고를 짓고 보관하였다. 오대산 사고가 있던 곳은 원래 물·불·바람이 침입하지 못한다는 상서로운 곳이었다고 한다. 일제에 의해 반출된 '오대산본'은 일본 관동 대지진때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소실을 피한 책 일부가 2006년과 2018년에 환수되어 총 75책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평창 백룡동굴

동강이 숨긴 비경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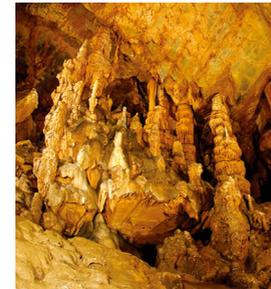


사진 ©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외 1필

평창의 백룡동굴은 남한강의 한 물줄기인 동강 옆의 백운산 기슭 절벽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동굴은 하나의 주굴과 3개의 가지굴로 되어있고 주굴이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수평동굴이다. 동굴 안에는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동굴산호, 동굴방패, 석화, 곡석, 커튼, 휴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지하궁전처럼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백룡동굴은 다양한 동굴 생물, 동굴 생물과 동굴 내 미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평창 기화리 코끼리바위

기화리 지역은 암회색 내지 담회색의 석회암과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화리 코끼리바위는 지금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년 전 하부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에 쌓인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회암은 따뜻한 열대, 아열대 기후 지역의 얇은 바다에서 석회성분(CaCO3)을 만드는 생물의 껍데기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으로, 암석 분류 중에서는 퇴적암에 해당한다. 이 지점의 상부에는 고마루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상부 카르스트 지표에 스며든 물이 이곳을 통해 유출되어 폭포를 이룬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25

평창 대관령양떼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3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 목장이다. 목장에 올라 바라보는 노을이 지는 황혼은 마치 꿈결같은 장관을 보이며, 넓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 떼들의 모습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황계리, 대관령양떼목장)



22 공주 마곡사

공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백제의 기상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은 475년에 함락되었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던 백제는 현재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 이때부터 웅진시대(475~538년)가 열리게 되었다. 6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제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주변국과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워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백제의 힘은 지금도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반짝거리고 있다.



공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백제의 기상

21

공주 공산성

웅진백제를 지킨 왕성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금강변에 있는 아산과 계곡을 둘러싼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원래는 흙으로 만든 토성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돌을 쌓아 석성으로 고쳤다. 만들어진 당시에는 웅진성으로 불렸지만 고려 시대 이후로 공주산성 또는 공산성으로 불렸다.

538년(성왕 16년)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주 공산성은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실제로 성 안에선 백제의 기와와 토기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유물들도 많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곳은 역사의 주요 장면들이 펼쳐진 곳이기도 했다.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는 의자왕이 잠시 머물렀고,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가 되기도 했으며, 통일신라 시대엔 김현창의 난(822년)이 일어났었다. 조선 시대에 이괄의 난(1623년)이 일어나자 인조가 잠시 피난을 온 적도 있었다.

능선을 따라 거침없이 뻗어 있는 공주 공산성에는 백제의 기상이 스며있는 듯하다. 이 당당한 성곽의 정문 역할을 하는 곳은 금서루인데, 이곳으로 들어가 성곽을 한 바퀴 돌면 성 안은 물론 공주 시내 전경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서문에서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공주 송산리 고분군), 백제의 제사유적인 정지산 유적, 금강변에 있는 고마나루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Tip 공산성 야경 포인트 공산성 맞은편, 즉 금강 건너편 금강신관공원에서는 능선을 따라 빛나는 공산성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공산성 앞에서 부교를 건너 공원으로 갈 수 있다.

22

공주 마곡사

신록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충청남도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화산에 위치한 마곡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태화산마곡사 사적입안』(1851년)에는 자장왕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귀국 후 선덕여왕의 후원을 받아 세운 7대 가람 중 세 번째 사찰로 창건 이후 다섯 번의 중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교양종대본산마곡사 연기략초』에서는 “보조선사 체징이 마곡사를 창건하고 그 후 범일국사, 도선국사가 확장과 중수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매년 봄마다 신록축제가 열릴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마곡사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쪽은 수행 공간인 남원이고 다른 한쪽은 예불 공간인 북원이다. 남원의 대표적인 전각이자 수행 공간의 중심인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영산(靈山)’은 석가모니가 설법했던 영축산의 준말로, 이 산을 사찰 내에 옮겨놓은 공간이 바로 영산전이다. 북원의 대표적인 전각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은 내부가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석탑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보물}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라마탑과 비슷한 이 유적은 고려 후기 원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라마교 문화의 대표적인 예다. 또한 마곡사는 화승(誦僧) 계보로도 유명해 남방화소(南方講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화승을 대대로 배출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화승들을 추모하는 불모다례제를 행하고 있다.

공주 마곡사 영산전은 석가모니불과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를 모신 법당을 가리키는데 이 건물은 천불(千佛)을 모시고 있어 천불전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시대 각순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키면서(1651년) 고쳐 지은 것으로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해탈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법당을 가리키는데 이 법당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불·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이 건물 역시 조선 시대 각순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킬 때 고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절마당에 우뚝 서 있는 오층석탑은 탑신의 몸통에는 부처, 보살 등을 조각해 놓았고, 지붕돌은 네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보인다. 일진왜란을 겪으면서 탑 안의 보물들을 거의 도난당하였으나, 1972년 해체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으로 만든 향로와 문고리가 발견되었다.

Tip 공주 마곡사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 숲 내음 가득한 백범 명상길을 걸으며 명상의 시간도 갖고 스님과의 차 명상 시간을 통해 일상의 지친 몸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

자세한 내용은 <산사의 길> 참고
→ p.66

21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웅진로 280

22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21 공주 공산성 | 사진 © 한국문화재단



22 공주 마곡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논산·부여 전진과 도약을 위한 백제의 계획도시

웅진시대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한 백제는 지금의 부여 지역인 사비로 천도를 결정했다. 국가의 성장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였다. 왕실이 자의적으로 도읍지를 옮긴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538년(성왕 16년)에 이루어진 사비 천도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비시대(538~660년)는 부여에 한층 완숙해진 백제의 문화와 안타까운 패망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부여 옆에 위치한 논산은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황산벌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백제의 충절을 상징하는 계백 장군이 신라군과 최후의 격전을 벌인 이곳은 예학(禮學)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논산·부여 전진과 도약을 위한 백제의 계획도시

23

논산 돈암서원

예학의 산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학의 대가 김장생(1548~1631)의 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엄격한 질서와 형식을 중시하는 예학은 예(禮)의 본질 및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율곡 이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받은 김장생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쓴 인물로, 이 서원은 그가 타계하고 3년 후인 1634년(인조 12년)에 만들어졌다.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배향 공간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돈암서원에는 서원 건축물 가운데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큰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靑島堂)이 있다.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인 응도당은 구조와 세부 기법이 특이한 건물로 평가받는다.

위패를 모신 숭례사의 꽃 담도 서원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고정산을 등지고 너른 평지에 자리한 건물들은 담담한 멋을 풍기지만, 서원 안의 배롱나무꽃이 만개하는 여름에는 화사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은 학문을 길고루던 강당으로 서원 옛 터에 남아있던 것을 1971년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겼다. 건물을 옮길 때 기외에 적힌 기록을 발견하면서 오래된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서원 성격 중 강당으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Tip. 돈암서원은 '토요성리학',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예절, 다도순서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 전 사이트를 참고해 보자.

www.donamseowon.co.kr

24

부여 나성

수도보호를 위한 외곽 방어시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538년경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남쪽과 서쪽으로는 금강이 흘러서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소산성에서부터 도시의 북쪽과 동쪽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성곽은 지형에 따라 축성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흙을 다져 쌓아 올린 형태로 지어졌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봉수 터와 건물 터가 남아 있고, 성안에 왕궁, 관청, 민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Tip 도성, 나성, 산성 도성(都城)은 한 나라의 도읍을 둘러싼 성곽으로 왕성(王城)을 뜻하기도 한다. 나성(羅城)은 안팎의 2층으로 된 성곽의 바깥 성벽을 의미한다. 왕성이 내성(內城)이라면, 왕성 바깥쪽 시가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나성은 외성(外城)으로 볼 수 있다. 부여 나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성으로 꼽힌다. 산성(山城)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에 쌓은 성곽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산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25

부여 부소산성

사비시대의 중심 산성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을 둘러싼 사비시대의 도성이다. 『삼국사기』에는 '사비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 부른다. 이곳은 538년(성왕 16년)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다. 군창 터와 건물 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고 평상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던 장소로 사용된 듯하다.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백화정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선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의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 정자 바로 아래, 즉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가 낙화암(충청남도 문화재자료)이다. 백제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궁녀들은 이곳으로 몰려와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로 뛰어내렸다. 『삼국유사』에는 '타사암'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훗날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암으로 고쳐 불렀다.

낙화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고란사(충청남도 문화재자료)가 있다. 사찰 뒤쪽 벼랑에 회귀한 고란초가 자라서 고란사라 불리게 되었는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약수가 특히 유명하다. 고란약수로 불리는 이 물은 한번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낙화암은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일시에 쳐들어와 왕성(王城)에 육박하자, 궁녀들이 굴욕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에 몸을 던진 곳이라 한다. 원래 이름은 타사암이었으나 뒷날에 와서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암이라고 고쳐 불렀다.

고란사 부소산 북쪽 기슭의 백마강 좌안(左岸)에 자리한 고란사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법당과 요사(寮舍)의 건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사찰이다. 이 사찰은 불적(佛跡)보다는 고란초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법당 뒤편에서 나오는 약수와 함께 이 사찰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침 만남 침 문화유산



23 논산 돈암서원 | 사진 © 한국문화재단



24 부여 나성 | 사진 © 백제세계유산센터



25 부여 부소산성 | 사진 © 한국문화재단

익산 새로운 부흥을 꿈꾼 백제의 신도시

익산에서 마을 캐머 살았던 서동은 백제 제30대 무왕으로 등극했다. 신라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그는 익산을 중요하게 여겼다. 현재 이곳엔 왕궁과 대형 사찰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는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해 만든 이 신도시는 무왕의 꿈이었다. 그 꿈속을 배회하다 마주치는 백제는 여전히 매혹적이다.



신용리

금마면

용순리

서동공원

도순리

두리봉

시대산

서고도리

오금산

우제봉

동고도리

금마 공용
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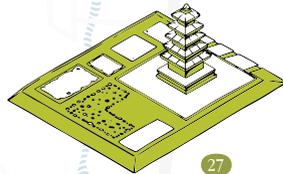
● 익산 보석박물관

● 익산 쌍릉

●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동촌리

광암리



도리산

왕궁면

왕궁리

익산 새로운 부흥을 꿈꾼 백제의 신도시

26

익산 미륵사지

백제 최대의 사찰 터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미륵사는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 때 창건된 사찰이다. 신라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기 위해 지은 것으로, 백제의 사찰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왕과 왕비가 사자사를 가던 중 용화산(지금의 미륵산) 밑의 큰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났는데, 왕비가 사찰을 짓고 싶다고 하자 왕이 연못을 메운 뒤 그곳에 미륵사를 지었다고 한다.

백제의 사찰은 하나의 탑과 하나의 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륵사는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백제인의 미륵신앙, 즉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곳에는 석탑 두 개와 목탑 하나가 있었는데, 서쪽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은 20년에 걸친 수리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639년(무왕 39년)에 만들어진 이 탑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이다. 원래는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쯤 부서진 상태로 6층 일부만 남아 있었다. 해체·보수작업은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건립 연대가 밝혀졌다. 크고 작은 석재들을 조립하여 복원한 미륵사지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9

27

익산 왕궁리 유적

무왕이 거주했던 왕궁 터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백제의 유적으로 꼽히는 곳이다. 백제 무왕 때 왕궁이 지어졌다가 후대에 주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을 지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발굴 과정을 통해 궁성과 관련된 건물 터와 정원시설, 화장실 터와 외부 담장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왕궁리 유적이 왕도였거나 최소한 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백제 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익산 천도설 또는 별도(別都)설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흔적만 남은 거대한 왕궁 터에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과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있다. 모형, 현황도, 영상,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은 백제 왕궁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창건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이다.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나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었다.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웠던 상태로 전해졌으나 1999년에 시작한 해체 보수 작업을 2019년 4월에 복원 완료 하였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작업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학술조사와 해체, 수리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이며 체계적인 사례로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 기간인 20년에 걸쳐 마무리되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이 석탑은 기단부가 파문혀 있던 것을 1965년 해체하여 수리하면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기단은 네 모서리에 8각으로 깎은 주춧돌을 기둥 삼아 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길고 큰 네모난 돌을 지그재그로 맞물리게 여러 층 쌓아 올려놓아 목조탑의 형식을 석탑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26 익산 미륵사지 | 사진 © 한국문화재단



27 익산 왕궁리 유적 |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백제 왕족들의 무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 © 백제세계유산센터

충남 공주시 웅진동 318-2
041-856-3151

공주 송산 남쪽의 야트막한 경사면에는 웅진 백제 시대 왕족들의 무덤 7기가 있다. 1~6호 분은 일제강점기에 고분의 구조와 형식이 밝혀졌지만, 부장품의 상당 부분이 도굴되어 무덤의 내력이나 당시의 문화상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1971년 5~6호 분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우연히 7번째 고분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령왕릉이었다.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능인 무령왕릉은 백제의 고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곳이다.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무령왕릉은 백제사 연구 및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북으로 긴 구조에 벽돌로 만들어진 이 터널형 무덤은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백제와 중국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덤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물 수천 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국보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크다.

예전에는 무령왕릉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으나 보존상의 문제로 1990년대 후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내부 관람은 금지되어 있다. 대신 고분 근처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전시관에서 무덤 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5~6호 분과 무령왕릉 내부를 재현해 놓았는데, 실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만큼 정교하다.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순교유적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의 순교지
충청남도 기념물



사진 © 공주시

충남 공주시 왕릉로 118
041-854-6321

'황새바위'는 예로부터 황새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던 시절, 사형 선고를 받은 신자들이 황새(목에 씌우는 칼)를 차고 이곳으로 끌려와 공개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부여 관복리 유적

백제의 마지막 왕궁 터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 ©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복리 33
041-830-2930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부소산 남쪽 기슭에 있는 사비 시대의 왕궁 유적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조사를 통해 건물 터, 도로, 배수시설, 창고, 우물 터, 연못 등이 발굴됐다. 부여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넓고 평탄한 지형, 백제시대의 연지와 대형건물 터는 이곳이 왕궁지였음을 뒷받침해 준다. 유적지에서는 토기, 귀걸이, 목간(木簡: 글씨가 적힌 나뭇 조각), 연꽃무늬 수막새, 부여 석조부록 등이 출토되었다. 전형적인 백제 양식을 따르고 있는 부여 석조는 연꽃무늬 장식이 없기 때문에 석찰보다는 왕궁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이 유물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관복리 유적은 백제 왕궁의 위치와 구조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지만, 너른 잔디밭 위에 남아 있는 흔적만으로 왕궁의 모습을 가늠해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이다.

부여석조는 왕궁에서 연꽃을 심어 그 꽃을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백제 시대의 유물로, 'I' 자형의 받침대 위에 둥근 꽃망울 형태로 올려져 있다. 받침대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간결한 모양이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우리나라 석탑의 시조
국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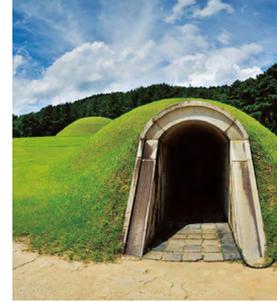
© 백제세계유산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041-832-2721

부여 정림사지(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는 사비 시대의 중심 사찰이 있던 곳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고려 시대 때 사찰을 재건할 당시 제작된 기와에 적힌 명문이 발견되어 '정림사'로 불렸음을 알게 되었다. 중문, 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 구조로, 사비 시대의 전형적인 사찰 건물의 배치 양식을 볼 수 있다. 현재 정림사지에는 백제 시대에 세워진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남아 있다. 목조건물을 사용되던 배움터 기법이 적용된 이 석탑은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구성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곳곳하게 서 있는 탑에선 장중한 기품이 느껴지지만, 위로 살짝 솟아있는 지붕돌의 처마 귀퉁이로 인해 우아하고 경쾌한 인상도 받을 수 있다.

부여 왕릉원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백제 왕족들의 무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 백제세계유산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61
041-830-2890

능산리 산 중턱에 위치한 7기의 무덤들이다.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에 조성되어 있는 이곳은 백제 왕족들의 공동묘지로 알려져 있다. 원형으로 봉긋하게 솟아 있는 고분들 가운데 1~6호 분은 일제강점기 때 조사되어 내부 구조가 확인되었고, 7호 분은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됐다. 1호 분(동하총) 내부에 그려진 사신도, 연꽃무늬, 구름무늬 벽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이 발견되었을 땐 도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의 물만 수습되었다. 능산리 고분군 옆에는 백제 왕실의 사찰이 있었던 부여 능산리 사지(사적)가 있다. 능 근처에 지은 절을 능사라 하는데, 이곳에 있었던 사찰은 안장된 역대 왕들의 명복을 빌었던 곳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진행된 조사에서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백제 금동대향로(국보)와 사찰의 창건 연대와 발원지를 알 수 있는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이 출토되었다.

부여 능산리 사지는 부여나성과 부여 왕릉원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백제 시대 절터 유적으로 창건 연대와 더불어 삼국 시대의 역사학과 건축공학, 고고학, 미술사학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백제 금동대향로 백제 나성과 능산리 무덤들 사이 절터 서쪽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백제의 향로이다. 높이 61.8cm, 무게 11.8kg이나 되는 대형 향로로, 크게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위에 부착한 봉황과 받침대를 포함하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석조사리감은 백제와 중국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금석문 자료이다. 백제 절터 중 절의 창건 연대가 당시 유물을 통해 최초로 밝혀진 작품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부여 공남지

백제의 별궁 연못
사적



사진 ©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041-830-2330

부여 남쪽에 위치한 백제의 별궁 연못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0여 리나 되는 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이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연못 가운데에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로와 물가·연못 속의 섬이 어떤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못의 중앙부에 석축과 버드나무가 남아있어 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변에서 백제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동해마다 한가운데에 일종의 이상향인 신선이 사는 3개의 섬으로 삼신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원의 연못 안에 삼신산을 꾸미고 불로장수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공남지는 이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신선정원이라 불린다. 수려한 연꽃 단지의 풍경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사진 명소로 꼽힌다.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토속적인 수호신이자
남녀상이라는 전설, 보물



사진 © 익산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086

약 2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2구의 석상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둥에 얼굴, 손, 대좌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불상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음력 12월에 두 불상이 만나 1년 동안의 회포를 풀고 새벽녘 우는소리를 듣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남녀상이라고 한다. 머리에는 4각형의 높은 관 위에 다시 4각형의 갓을 쓰고 있다. 4각형의 얼굴에는 가는 눈, 짧은 코, 작은 입이 간신히 표현되어 있는데, 토속적인 수호신의 표정이다. 몸은 사다리꼴의 돌기둥으로 굴곡이 없으며, 팔은 표현되지 않고 손만 간신히 배에 나타내었다. 도포자락 같은 옷은 특별한 무늬 없이 몇 줄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대좌와 불상을 같은 돌에 새겼는데, 앞면을 약간 깎아 대좌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다. 사다리꼴의 돌기둥 같은 신체나 비사실적인 조각 수법이 마치 분묘의 석인상과 비슷하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 신체표현이 지극히 절제된 거대한 석상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불상 역시 그러한 작품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익산 쌍릉

나란히 자리 잡은 2기의 무덤
사적



사진 © 문화재청

전북 익산시 쌍능길 65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무덤으로, 남북으로 2기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 쌍릉이라고 부른다. 규모가 큰 것을 대왕릉, 작은 것을 소왕릉이라 부른다. 남성의 인골이 발견된 대왕릉은 무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소왕릉은 무덤의 주인을 추정할만한 단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 안의 구조는 백제 후기 굴식돌방무덤(황혈식석실묘)이며, 무덤의 봉분과 돌방의 크기가 큰 북쪽의 것을 대왕묘라 하고, 남쪽의 작은 것을 소왕묘라고 부른다.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2기 모두 원형의 봉토무덤으로 흙을 높이 쌓아 만든 봉분 이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다. 1916년 조사할 당시 무덤은 이미 도굴이 되어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다행히 대왕묘 안에서 나무로 만든 판이 일부 발견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무관은 바닥면보다 위쪽 면이 약간 넓고, 뚜껑의 윗면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고리에는 8쪽의 꽃잎을 가진 연꽃무늬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공주 공산성 고마나루 명승길

공주 공산성 인근 산책길로 고마나루에서 출발해 공주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과 송산리 고분군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새바위 성지까지 3시간 30분 코스를 산책할 수 있다.

공주 석장리박물관

공주 석장리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가 있었음을 알려준 발굴지 인근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구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중석기 시대의 문화층까지 발견돼 구석기 연구의 출발지이자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까지 출토돼 3~5만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눈앞에 들여다볼 수 있다.

충남 공주시 금벽로 990
041-840-8924

공주 한옥마을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숙박 시설은 물론 다양한 공방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규모가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한옥의 운치를 만끽하며 산책하기에 좋다.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041-840-8900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공산성 및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웅진백제의 세련된 미의식과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041-850-6300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이곳엔 백제 금동대향로(국보)가 전시되어 있다. 금동대향로는 대형 향로로 뚜껑에는 꼭대기에 여의주를 품고 날개를 편 채 힘 있게 서 있는 봉황과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5인의 악사,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 호랑이, 사슴 등의 현실 세계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활짝 피어난 연꽃을 연상시키는 아래의 몸체는 불사조와 물고기, 사슴, 학 등 26마리의 동물과 한 마리의 용이 배치되어 있다. 오랜 세월 진흙에 묻혀 있다가 1993년에야 모습을 드러낸 이 유물은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사상, 창의성과 조형미, 빼어난 금속공예 기술 등이 압축되어 있다. 백제시대의 창의성과 뛰어난 조형성을 바탕으로 공예기술 및 미술품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이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041-833-8562

국립익산박물관

익산 미륵사지 바로 옆쪽에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하에 만들어진 박물관에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가 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넣은 용기나 함께 봉안되는 공양물 등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석탑을 해체할 때 발견된 이 유물은 봉안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백제의 금속공예 수준을 가늠하게 해준다. 사리장엄구에는 얇은 금판으로 만든 '금제사리봉영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앞면엔 좌평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063-830-0900

논산 명재고택

조선 숙종 때 건립한 명재 윤증 선생의 생가로, 조선 시대 상류 양반 가정의 표본이 되는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까지 포함된 ㄱ자형의 목조 건물에 연못까지 선조들의 건축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집 앞에는 넓은 바깥마당이 있고 그 앞에 인공연못을 파고 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만들어 정원을 꾸몄다. 또한 안채 뒤쪽에는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독특한 뒤뜰을 가꾸어, 우리나라 살림집의 아름다운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모든 건축 부재의 마감이 치밀하면서 구조가 간결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조선의 양반주택이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익산 보석박물관

국내 유일의 보석전문박물관이다. 11만여 점 이상의 진귀한 보석과 원석이 소장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보석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돌들은 눈을 호강시키기 충분하니 시간이 맞으면 둘러보도록 하자.

전북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063-859-4641

백제문화단지



사진 © 백제문화단지

유물과 유적에 근거하여 사비백제의 왕궁, 농사, 생활문화마을 등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정문인 정양문으로 들어가면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이 나타난다.

이곳은 국가의 중요 행사가 이루어졌던 천정전을 중심으로 왕과 신하들의 집무공간이었던 동궁과 서궁으로 나뉜다. 동궁에서는 문관에 관한 업무를, 서궁에서는 무관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다. 사비궁 옆에는 백제 왕실의 사찰인 능사가 있다. 부여 능산리 사지(사적)에서 발굴된 유적을 바탕으로 재현한 사찰인데, 대웅전을 비롯한 부속 전각까지 복원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8미터 높이의 능사 오층목탑으로, 백제문화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엄한 모습이 탄성을 자아낸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041-408-7290

산사의 길

공주 · 보은 · 순천 · 안동
양산 · 영주 · 합천 · 해남



한국의 산지 승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건 삼국시대 때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때부터 꽃피운 한국 불교는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찰은 도시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산지에 세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산속에 있는 사찰을 산사(山寺)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유·무형의 문화적 전통이 지속되어 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예불과 의례, 강론 등 불교 수행뿐 아니라 창건 스님과 호국영웅을 기리는 신앙 등을 포함한 융합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로 7개의 사찰이 대표적인데, 오늘날까지 불교 의례를 지속해오고 있는 이 사찰들은 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하다. 또한 불보(佛寶)사찰 양산 통도사와 함께 한국의 3보(寶) 사찰인 법보(法寶)사찰 합천 해인사, 승보(僧寶)사찰 순천 송광사 또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사찰로 그 시대의 역사적 구조물과 전각, 유물, 문서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 공주 마곡사
- 32 보은 법주사
- 33 순천 선암사
- 34 순천 송광사
- 35 안동 봉정사
- 36 양산 통도사
- 37 영주 부석사
- 38 합천 해인사
- 39 해남 대흥사

공주 마곡사

신록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충청남도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는 창건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류를 사이에 두고 북원과 남원으로 영역을 구성하여 석가 신앙을 구현하는 산사의 특성을 단절 없이 이어왔다. 북원은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과 14세기에 건립된 티베트식 상륜부를 갖춘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보물}을 중심으로 예불 공간이 있고, 남원은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과 수행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곡사에서는 불화를 그리는 유명한 화승들이 많이 활동하여, 오늘날까지 역대 화승들을 추모하는 불모다례제를 행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자세한 내용은 <백제고도의 길> 참고
→ p.50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법당을 가리키는데 이 법당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불·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조선 시대 각순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킬 때(1651) 고쳐 지은 것이라고 한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탑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단을 2단으로 쌓고, 그 위로 5층의 탑신을 올린 후 머리장식을 올린 모습이다. 만들어진 시기는 머리장식의 독특한 모습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고려 후기 즈음으로 여겨진다. 즉 고려 후기 당시 원나라와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라마교 계통의 문화도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탑은 그 문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공주 마곡사 영산전은 석가모니불과 일대기를 담은 팔상도를 모신 법당을 가리키는데 이 건물은 천불(千佛)을 모시고 있어 천불전이라고도 부른다. 이 역시 조선 시대 각순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키면서 고쳐 지은 것으로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해탈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보은 법주사

속리산의 보물창고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년) 신라의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미륵 신앙의 요람인 법주사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 돌로 만든 연못인 보은 법주사 석련지^{국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탑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등 많은 보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보물}은 부여 무량사 극락전^{보물},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과 함께 3대 불전(佛殿)으로 꼽힌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법주사 대웅전과 팔상전 사이에 있는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석조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보물)과 함께 통일신라 석등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보은 법주사 석련지는 돌로 만든 작은 연못으로,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뜻하는 연꽃을 띄워 두었다고 한다. 사찰 곳곳에서 연꽃을 본뜬 여러 형상들을 만날 수 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벽 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 붙였다.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내부에는 가운데에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 왼쪽에 보신(報身)인 노사나불, 오른쪽에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 삼존불을 모셨다.

보은 무량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2층 불전으로 무량사의 중심 건물이다. 이미터여래삼존상을 모시고 있는 이 불전은 조선 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낸 불교 건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물이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건물이 매우 웅장하며 건축기법도 뛰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각황전'이란 이름은 속중이 지어 환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순천 선암사

무지개가 뜬 천년고찰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선암사는 고려 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중창된 이후 수차례 중창을 거치며 오늘에 이른다. 빼어난 풍경과 어우러진 고색창연한 경내에는 커다란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순천 선암사 승선교^{보물}, 화려하고 장식적인 순천 선암사 대웅전^{보물},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순천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보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33조사도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보물} 등이 있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순천 선암사 승선교 선암사의 부도(浮屠)를 지나 경내에 이르면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목에 놓인 다리가 승선교이다. 1698년(숙종 24년) 관음보살을 보기 위해 기도했지만 보지 못한 호일대사가 벼랑에 몸을 던지려던 순간 대사를 구해준 여인이 관음보살임을 깨닫고 원통전을 세우고, 절 입구에 무지개다리(승선교)를 세웠다든 전설이 전해진다.

순천 선암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은 선암사의 중심 법당으로, 다모계의 일반적인 수법을 따랐으나 화려한 건축양식과 장식성에서 조선 후기 중건 당시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어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순천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 선암사 안의 승선교를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대웅전 앞에 좌우로 3층 석탑 2기가 서있다. 2단으로 이루어진 기단(基壇) 위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형태이다. 이 두 탑은 위와 아래의 비율도 건설하고 우아하며 신라 시대 석탑의 전형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이 작품은 『조당집(祖堂集)』에 근거하여 가섭존자부터 중국의 육조 혜능 스님까지 33명의 조사를 11 폭으로 나누어 그린 것으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선종 33조사도이다. 원래 총 11 폭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7폭만이 남아있는데, 현존하는 유일한 33선종조사도라는 희귀성과 도상의 구성 방식과 정취한 필치 등에서 뛰어나게 보여준다.



31 공주 마곡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32 보은 법주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33 순천 선암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순천 송광사

승보의 사찰
사적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승보(僧寶) 사찰이라 불리는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되었으나 고려 시대에 보조국사 지눌이 불교계 정화를 위해 일으킨 결사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크게 중창됐다. 16분의 국사 진영을 모신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화엄경』의 설법 내용을 담은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국보}, 정교하게 조각된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전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보 사찰로 꼽힌다.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순천 송광사 국사전은 나라를 빛낸 스님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로, 옛날에는 참선을 하던 곳이었다. 건축 구조상 조선 초기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이 건물은 순천 송광사 하사당(보물)과 같은 시대에 지은 것으로 짐작되며, 소박하고 아담한 형태와 그 기법에서도 주심포 중기 형식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건축물이다.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화엄경』의 7처9회(七處九會)의 설법 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설법 내용을 매우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기준작이라는 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더불어 황토색 바탕에 홍색과 녹색 및 금색을 사용하고, 각 회주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영역에 고분법을 활용하여 장식함으로써 화면이 밝고 화려해지는 18세기 불화의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로 만든 것을 불감(佛龕)이라 하는데, 불감은 그 안에 모신 불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 양식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목조삼존불감은 매우 작으면서도 세부 묘사가 정교하고 정교하여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에 남아 있는 불감류 가운데 매우 희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안동 봉정사

봉황이 머무른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등산에 자리한 봉정사는 672년(문무왕 12년)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봉정(鳳停), 즉 봉황이 머무른다는 뜻을 가진 이 사찰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하다는 느낌을 준다.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이 있으며, 대웅전과 극락전이 각각 마당을 갖춘 구조로 형성되어 각각 석가 신앙과 미타 신앙을 구현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자세한 내용은 <천년정신의 길> 참고
→ p.150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극락전은 원래 대장전이라고 불렸으나 뒤에 이름이 바뀌었다. 1972년 보수공사 때 1363년(공민왕 12년)에 지붕 수리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전통 목조건물의 통상적인 수리 시기가 건립 후 100~15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1200년대 초 건립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양산 통도사

금강송이 인사하는 불보(佛寶) 사찰
경상남도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646년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보(佛寶) 사찰이다. 따라서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건물 뒷면의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 통도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별자리를 진주로 표현한 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보물}, 인상적인 벽화가 그려진 양산 통도사 영산전^{보물} 등 아름다운 보물들이 보전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고 있는 금강계단은 각각 건축 구조와 건축사 연구, 계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통도사'라는 절 이름도 금강계단을 통하여 도를 얻는다는 의미와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통도(通度)라고 하였다.

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의 전면에는 천구(天球)의 북극을 중심으로 둥글게 북극으로부터 적도 부근에 이르는 영역의 별자리들이 표시되어 있다. 천문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28수 등 각 별자리들을 손으로 더듬어 알 수 있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진주 보석에 희미한 빛을 비추어 별자리를 찾거나 익히는데 편리했을 이 천문 도판은 휴대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과학 유물로 볼 수 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통도사 하로전(下爐殿)의 중심 건물로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전면의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놓여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단 배치 및 벽화를 구성하기 위한 벽면 구성, 반자의 구성 등에서 특징적이며, 상부 가구와 공포 형식 또한 18세기 초 불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불교 건축사와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4 순천 송광사 | 사진 © 송광사



35 안동 봉정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36 양산 통도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영주 부석사

전통과 아름다움이 깃든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는 676년에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미타 신앙의 성지인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창건되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세운 이른바 '화엄 10찰' 가운데 한 곳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사로 여겨졌으며, 창건 이래 의상대사의 법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이다. 이곳엔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이 있다. 불전의 정면이 아닌 옆면에 모신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국보}은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도 비례감과 정교함이 돋보인다.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중심 건물로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여래불상을 모시고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과 더불어 오래된 건물로서 고대 사찰 건축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물이 되고 있다.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부석사 무량수전에 모시고 있는 소조불상이다. 소조불상이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불상은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光背)는 불상의 뒤면에 나무로 따로 만들어 놓았다. 머리와 몸광배는 원형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는 화려한 꽃무늬를 장식하였고, 작은 부처를 달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무량수전 앞에 세워져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등으로 부처의 광명을 상징한다 하여 광명등(光明燈)이라고도 한다.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火舍石)을 중심으로 아래는 3단의 받침돌을 두고, 위는 지붕돌을 올린 후 꼭대기에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한다.

합천 해인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안한
법보(法寶)사찰, 사적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가야산 서남쪽에 자리한 해인사는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응대사와 이정대사가 802년(애장왕 3년)에 창건하였다. 조선 초 해인사로 팔만대장경판을 이운하여 모시게 되면서,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안한 법보(法寶) 사찰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완벽한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귀중한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대장경은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을 말하며,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었다고 해서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하고, 판수가 8만여 개에 달하고 8만 4천 번뇌에 해당하는 8만 4천 법문을 실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팔만여 장의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산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임진왜란에도 피해를 입지 않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5세기 건축물로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해남 대흥사

두륜산의 절경을 품은 호국도량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두륜산의 절경을 품은 대흥사는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친 서산대사의 의복(衣鉢: 의복과 공양 그릇)이 전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호국도량이다.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들을 배향한 표충사(表忠祠)는 정조가 사액을 전하였으며, 서산대사의 구국정신을 기려 국가에서 건립한 호국도량의 표상이다. 이렇듯 사찰 경내에 유교식 사당이 건립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또한 다선일미(茶禪一味)라 하여 동다승을 통해 차의 품격을 높인 초의선사가 머물던 일지암이 있으며,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그리고 다산 정약용과의 교류는 승과 속·유교와 불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탑^{보물},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보물},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등 유구한 문화유산이 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탑은 대흥사 입구에 자리한 부도전 내에 건립되어 있다. 이 탑은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갖춘 석조탑으로, 각 부분에 표현된 다양한 조식은 다른 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 등 탑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 임진왜란 때 승군(僧軍)으로 나선 서산대사를 승군 대장 도총섭(都總攝)으로 임명한 교지와 정조가 서산대사의 충절을 기리는 내용을 친히 적은 서산대사화상당명 총 2점이다. 꽃, 구름무늬 채화가 그려진 당황색 비단에 내용이 적혀있고, 끝부분에는 정조의 친필임을 상징하는 '홍재(弘齋)'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바위면에 고부조(高浮彫)되어 있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공양천인상이 함께 표현된 독특한 도상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여래좌상이다. 규모가 크고 조각 수법도 양감이 있고 유려하여 한국의 마애불상 중에서는 드물고 뛰어난 상으로 평가된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



37 영주 부석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38 합천 해인사 | 사진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9 해남 대흥사 |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서원의 길

경주 · 논산 · 달성 · 안동
영주 · 장성 · 정읍 · 함양



한국의 교육 시설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를 주도했던 사림(士林)은 지방에 근거지를 둔 지식인들이었다. 학문과 교육을 중시했던 이들은 지방에 사설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이었다. 조선 중기에 처음 지어진 서원은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선현(先賢)을 추모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에는 제사드리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원 역시 그러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선비정신이 담겨 있는 서원은 독자적인 건축 형식을 갖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전국적으로 650여 개에 달했던 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철폐령으로 인해 47개만 남게 되었으나,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9개의 서원들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서원들은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1
경주 옥산서원
- 42
논산 돈암서원
- 43
달성 도동서원
- 44
안동 도산서원
- 45
안동 병산서원
- 46
영주 소수서원
- 47
장성 필암서원
- 48
정읍 무성서원
- 49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누마루를 유행시킨 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학자 이연적을 배향한 서원으로 1572년에 창건됐다.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연적은 조선의 성리학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서원은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원리에 따라 앞에는 학문을 배우는 강학 공간을, 뒤에는 사당이 있는 제향 공간을 배치하는데, 이곳 역시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유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던 무변루는 서원 건축에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가 도입된 최초의 사례다. 외부의 경관과 내부의 경관을 연결하는 누마루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존하는 서원 문고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삼국사기국보』와 조선의 경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이연적 수고본 일괄-속대학혹문보』 등이 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弼, 1075~1151)이 1145년(인종 23년)에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삼국 시대 연구의 기본서로 인식되고 있다. 기전체는 역사 서술 체계의 하나로 역사적 인물의 개인 전기(傳記)를 이어 감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기술 방법이다.

이연적 수고본 일괄-속대학혹문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회재 이연적(1491~1553)이 1547년(명종 2년)에서 1553년(명종 8년) 사이에 직접 쓴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송의 주희가 지은 『대학혹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항목을 추가 기록한 것으로 이 책은 정조 때 경연에서 강의되었고, 정조는 친필로 '제선정희재속대학혹문권수'라는 제목의 머리글을 써서 내려보냈다.

논산 돈암서원

예학의 산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은 훌륭한 분들의 제사를 지내고 후학을 양성하던 지방 교육기관이다. 돈암서원은 예학의 대가 김장생(1548~1631)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인조 12년)에 창건한 서원이다. 엄격한 질서와 형식을 중시하는 예학은 예(禮)의 본질 및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율곡 이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받은 김장생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쓴 인물로, 이 서원은 그가 타계하고 3년 후인 1634년에 만들어졌다. 원래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휘가 경회당을 세워 학문연구에 힘쓰고 이후 김장생이 양성당을 세워 후진 양성을 하였다. 후세에 이 경회당과 양성당을 중심으로 김장생을 추모하여 후학에 힘썼다. 현종 원년(1660)에 왕이 '돈암'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어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김집, 송준길, 송시열을 추가로 모시었다.

이 서원에는 『황강실기』, 『사계유교』, 『상례비요』 등의 서적들이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사우(祠宇), 응도당, 장판각 등의 건물들과 하마비, 송덕비가 남아 있다. 너른 평지에 자리한 서원은 수수하고 담담한 멋을 풍기지만, 예학 논의의 중심이었던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부록은 서원 건축물 가운데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크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선현께 제사 지내고 학문을 이어받고자 설립한 조선 시대 사립교육기관으로 1634년(인조 12년)에 세웠다. 김장생(1548~1631)을 중심으로 김집,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 강당의 성격 가진 서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옛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건물로 강당 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달성 도동서원

소학동자를 기리는 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리학의 기본인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한 김굉필을 추모하기 위해 1605년에 창건됐다.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물들이 중심축을 따라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곳은 공간 구성도 뛰어나지만,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부록은 서원 건축의 미학을 보여준다. 높은 기단 위에 자리한 중정당은 강당 건물로, '중정(中正)'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흙과 돌과 기와를 이용해서 쌓았는데, 높낮이가 다른 지붕선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고고하고 반듯하다. 옥산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힌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사당, 담장 행사와 교육의 중심 건물이며, 제사 지내는 공간의 중심 건물인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김굉필 선생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강당을 둘러싼 담장은 기와를 이용해 쌓은 맞담으로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다. 간결하고 검소하게 지은 전통 깊은 조선 중기 서원 건축물로 잘 보존해야 할 문화재이다.



41 경주 옥산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2 논산 돈암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3 달성 도동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안동 도산서원

영남 유학의 중심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른네 살 때 과거에 합격한 이후 4명의 임금을 섬겼던 '퇴계 이황(1501~1570)'은 성리학을 체계화한 조선의 대학자였다. 그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1561년 도산서당을 지었는데,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문인과 유생들이 서당이 있던 자리에 도산서원을 지었다. 1576년에 완공된 서원에는 이황이 직접 설계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비롯하여 이황의 위패를 모신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보물}, 서원의 강당인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등이 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자세한 내용은 <천년정신의 길> 참고
→ p.150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도산서원 제일 뒤쪽에 있는 상덕사는 이황 선생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상덕사의 문은 상덕사를 지을 때 같이 지은 것으로 앞면 기둥은 계단 높낮이 때문에 다른 기둥보다 길이가 길다.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전교당은 유생들이 자기 수양을 하고 자제들을 교육하는 강당으로 1574년(선조 7년)에 지은 것을 1969년에 보수한 것이다. 선조가 서원에 내려준 '도산서원'이라는 현판 글씨는 명필 한석봉이 임금님 앞에서 쓴 글씨라고 전한다.

안동 병산서원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안동에서 서남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굽이치는 곳에 화산(花山)을 등지고 자리하고 있다. 유성룡은 도학·글씨·문장·덕행으로 이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도 성곽 수축과 화기 제작을 비롯하여 군비 확충에 힘써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병산서원은 유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을 배향한 곳으로, 고려 시대 사람의 교육 기관이었던 풍악서당에서 기인했다. '병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이 병풍을 둘러친 듯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만대루 기둥 사이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가 된다.

크고 우직한 만대루의 기둥은 다듬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고, 자연석을 이용한 주춧돌 역시 거칠고 투박하다. 인공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건축물은 낙동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친화적 공간을 연출한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자세한 내용은 <천년정신의 길> 참고
→ p.154

영주 소수서원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안향을 배향하는 사당을 세우고 1543년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시초다.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안향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다.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先賢)에게 제사드리기 위해 설립한 시설 교육기관으로, 성리학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학문을 강론하던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보물}과 경내에 있는 사당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가 있다. 소수박물관에는 안향 초상^{국보}이 있다. 서원이 건립되기 전에는 속수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여서 영주 속수사지 당간지주^{보물}도 남아 있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은 서원의 앞대 기능 중 하나인 학문을 강론하던 장소로 정대석의 높은 기단을 쌓아 그 위에 자연석을 다듬은 초석을 놓았다. 강학당 내부 대청의 북면에는 명종의 친필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편액이 높이 걸려 있다.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는 소수서원의 경내에 있는 제향 기능의 사당으로 고려 중기 문신인 회헌 안향이 주향(主享)이다. 매년 3월, 9월 초정일(初丁日)날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주세붕이 직접 쓴 제향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출기문서(笄記文書)가 전하고 있다.

안향 초상 고려 중기 문신인 회헌 안향(1243~1306) 선생의 초상화이다. 안향은 1260년(원종 1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하였으며, 수차례 원나라에 다녀오면서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보급한 인물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영주 속수사지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 두는데 이 깃발을 걸어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소수서원 입구 소나무 숲에 남아 있다.



44 안동 도산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5 안동 병산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6 영주 소수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장성 필암서원

조선 인재양성 보고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제12대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김인후'의 학역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에 세운 서원이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필암서원 문적 일괄본들은 유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원의 역대 원장들, 수업을 담당한 교관, 강의에 참여한 인물 명단, 서원 소속 유학생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필암서원의 운영과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김인후'와 관련된 문서들을 새긴 목판인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목판일괄(시도유형문화재)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서원 강당은 남쪽에 있는 입구를 향해 지어지지만, 필암서원의 강당은 북쪽에 있는 사당을 바라보게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송시열'이 쓴 현판이 걸려 있는 환연루는 서원의 정문이자 휴식공간으로, 탁 트인 평야를 조망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필암서원 문적 일괄 필암서원의 역대 원장들을 기록한 『원장선생안』,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한 교관, 강의에 참석한 인물의 명단 등을 기록한 『보강안』, 강회 참가자의 명단인 『문계안』, 필암서원 소속 유학생들의 명단인 『서재유안서』 등으로 필암서원의 운영과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목판일괄 조선 인종 때의 학자인 하서 김인후(1510~1560)와 관련된 문서를 새긴 56개의 목판이다. 1610년(광해군 2년)에 『초서천자문』 18판과 『해자무이구곡』 18판, 1568년(선조 1년)에 『백련초해』 13판과 『유목』 4판,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판 3판으로 1568년(선조 1년)과 1770년(영조 46년)에 새긴 것이다.

정읍 무성서원

전북 사림 활동의 거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일신라 후기의 학자 '최치원'의 사당과 사·서·화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불린 조선의 문신 '신장'의 사당을 병합하여 만든 서원이다. 원래는 태산서원이었으나 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전학후묘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명륜당과 사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담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산속에 위치한 다른 서원들과는 달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무성서원은 1906년 호남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최익현'과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거점이 바로 무성서원이었다. 서원 옆에 있는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는 당시의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함양 남계서원

남계천이 흐르는 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으로 '남계'라는 이름은 서원 주변을 흐르는 남계천에서 비롯되었다. 1552년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는데, '정여창'은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동방오현(東方五賢)'으로 추앙받는다. '동방오현'이란 우리나라의 뛰어난 다섯 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위패는 모두 성균관 문묘에 봉안되어 있다. 남계서원은 전학후묘 배치 원리가 시작된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당에서는 산줄기와 물줄기로 둘러싸인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강학 공간의 중심인 명성당 앞쪽 좌우에는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각각의 건물에는 누마루와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 서원 안에 연못이 두 개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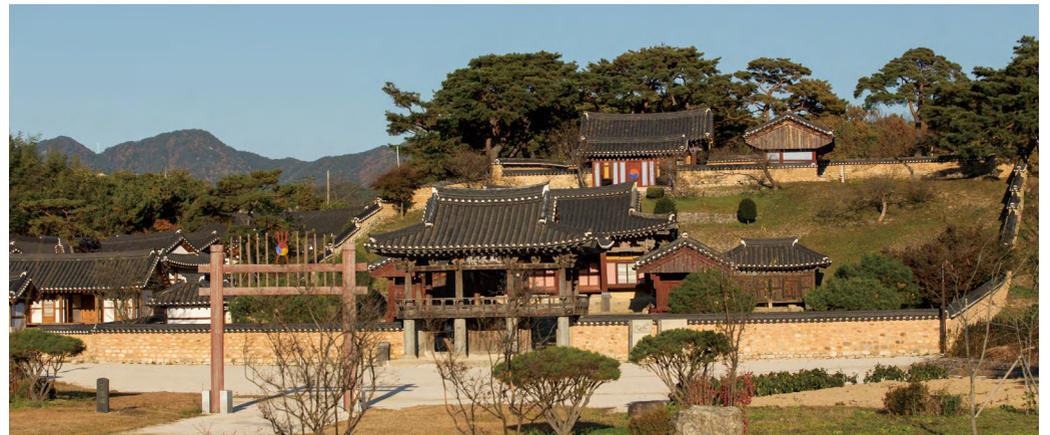
Tip.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를 산책해보자
선비의 마을인 함양답게 함양에는 정자와 누각이 100여 채가 있어 예로부터 예쁜 정자와 바위가 많아 '팔담팔정'이라 불렀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서하면 봉전리, 다곡리 일원의 6.2km 길이의 선비문화탐방로로 조성하여 선비들이 지나다니던 숲과 계곡 정자를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였고, 숲길을 지나고 바위와 다리를 건너며 자연 속 정자의 빼어난 경치를 누릴 수 있다.



47 장성 필암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8 정읍 무성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49 함양 남계서원 |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선사 지질의 길

연천 · 철원 · 포천

한탄강, 임진강 일부는 약 54~12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기에 용암으로 인한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 폭포 등의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으로 비경을 지니고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북부지역인 연천과 포천에서는 지형,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높은 자연 유산을 볼 수 있다.



연천 전곡리 유적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적

추가령지구대 서남부에 위치한 연천 전곡리 유적(전곡선사유적지)은 1978년 구석기 시대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적이다. 연천 한탄강변의 용암대지 위에 퇴적되어 있는 두터운 점토층에서 다량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사적지 및 주변 지역에 걸쳐서 총 17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약 8,500여 점에 이른다. 전곡리 유적 조사를 계기로 한탄강·임진강 유역에 대한 4기 지질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탄-임진강 유역의 여러 지점에서 중요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한탄-임진강의 구석기 유적지는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전곡리 유적은 세계 구석기 학계에서 고인류의 문화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제시하였고, 유적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석기 연구 방법론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연천 호로고루

고구려의 축성 기술
사적

호로고루는 임진강 북안에 있는 현무암 대지 위에 구축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이다. 2001년 이후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견고하게 쌓은 성벽과 목책, 대형 집수 시설 및 각종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또한 연화문 와당과 치미를 포함한 많은 양의 기와, 토기, 철기 유물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성곽의 구조와 함께 고구려 축성기술과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세기 중엽 이후 약 200여 년간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하천 역할을 했던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고구려 국경 방어 사령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호로고루는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술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결합한 축성 공법은 중국 국내성과 평양의 대성산성 및 남한의 고구려 보루에서도 확인되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축성 공법이다.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Tip 연천 전곡리 유적지 내부는 드넓은 잔디밭 위로 다양한 전시물이 자리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선사박물관도 놓치지 말아야 할 탐방지로 연천에서 발견된 다양한 크기의 주먹도끼를 비롯해 원시시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알찬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Tip 호로고루 홍보관에서 고구려 축성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임진강을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Tip '연천 호로고루'는 '연천 당포성', '연천 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 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 하천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1 연천 전곡리 유적 | 사진 © 연천군



52 연천 호로고루 | 사진 © 한국문화재단

철원 고석정

거대한 기암 위의 정자

철원팔경 중 하나인 고석정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의 한탄강 협곡 내에서 관찰되는 화강암 바위 위의 정자이다.

한탄강 한복판에 치솟은 1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암이 솟아 있고, 그 양쪽으로 맑은 물이 휘돌아 흐르는데, 여기에 신라 진평왕 때 축조된 정자를 '고석정'이라 하고 고석바위 주변의 계곡을 '순담'이라 한다. '고석정'은 신라 때는 진평왕, 고려 때는 충숙왕이 찾아와 노닐던 곳이라고 전해지며, 조선시대 의적으로 불린 임격정의 활동 은거지로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곳은 기묘한 바위와 깎아내린 듯한 벼랑 등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계곡에는 보기 드문 하얀 모래밭이 천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석정은 한탄강 협곡 내에서 기반암인 화강암이 현무암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일대는 현무암 용암대지 형성 이전의 지형과 함께 현무암질 용암이 기반암 위로 흘러 용암대지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지형 학습장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의 작용에 의하여 지표에 드러난 이후 약 54만 년 전부터 약 12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현무암 용암류에 뒤덮인 후 한탄강에 의해 일어난 침식작용으로 새로운 물길의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시 지표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포천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중심의 지질학적 이해의 단초 천연기념물

비둘기낭 폭포는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동일하게 한탄강 용암대지가 불무산에서 발원한 불무천에 의해 개석되면서 형성된 폭포이다.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 폭포라 부른다. 또 다른 설은 예전부터 양비둘기가 폭포 주변의 동굴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이라 불린다고 전해진다.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같이 주변의 크고 작은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 협곡, 용암 대지 등 철원-연천 지역의 지형 및 지질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용암 대지 내의 폭포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폭포 지형으로, 한탄강을 중심으로한 지역의 지형,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비둘기낭 폭포는 지질·지형학적으로 하식 동굴, 협곡, 두부침식, 폭호 등 하천에 의한 침식 지형을 관찰할 수 있고, 주상절리, 판상절리 등 다양한 지질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탄강에 흐른 용암의 단위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 6.25전쟁 당시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마을 주민의 대피시설로도 사용되었고, 군인들의 휴양지로도 사용되었다. 현재는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비경을 전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415-2

Tip 한탄강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석정 일대에는 기암괴석과 송대소 주상절리 은하수고 등 다양한 지질학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문화자원들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다.



53 철원 고석정 | 사진 © 철원군



54 포천 비둘기낭 폭포 | 사진 © 한국문화재단

포천아트밸리

폐석장의 재탄생

포천아트밸리는 방치된 폐석을 활용해 멋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이곳은 국가 주요 기관인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인천국제공항 등의 건물에 사용될 만큼 재질이 단단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포천석을 1960년대부터 30년간 채석하던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1990년대 이후 양질의 화강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방치되어 황폐화된 곳을 포천시에서 복합 문화 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포천아트밸리는 훼손된 자연경관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일부는 과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근대산업유산의 흔적과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한 반성의 공간을 함께 살려낸 의미 있는 장소로서, 역사와 문화예술 및 교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Tip 천주산 중턱에 있는 **포천아트밸리**는 입구에서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노레일 하차장에 내리면 산마루 공연장이 있으며, 매년 4월~10월 주말 및 공휴일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천문과학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천체관측실을 비롯한 전시실 관람은 별도의 요금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국내 최초 지질공원 전문 박물관

국내 최초 지질공원 전문 박물관으로 한탄강을 탐방하는 관광객과 학생들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장소다. 한탄강의 지질, 역사, 고고, 생태, 문화자원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지질공원은 '단일의 통합된 지리적 영역으로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니는 명소에 대해 경관의 보호, 교육, 연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56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 사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포천 화적연

한탄강이 품은 비경, 명승

화적연은 한탄강의 강물이 휘도는 아름다운 지형에 있는 바위로, 강물과 자연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다. 하천이 휘돌아가며 생겨난 깊은 연못과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13m나 솟아올라 있으며, 짙은색의 현무암 절벽과 밝은색의 기동바위, 질푸른 물빛이 어우러져 있다. 화적연은 지형적 가치도 높는데, 대보화강암(중생대 백악기 화강암)을 뒤덮은 현무암층, 현무암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상류에서 공급된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물이 마르지 않아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여겨져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며, 많은 '고시문(박세당, 박순, 홍양호, 이항로, 이병연 등)'과 '실경산수화(정선, 이운영, 정수영 등)'가 전해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0



55 포천아트밸리 | 사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57 포천 화적연 |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연천 당포성

고구려의 산성
사적



사진 © 문화재청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88 등

허복의 『기언별집(記言別集)』에서 당포성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며,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되는 귀한 문화유적이다.

연천 은대리성

고구려의 산성, 사적



사진 © 문화재청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등

연천 은대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1995년도에

발간된 『연천군 사료집』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은대리성은 한탄강 장진천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삼각형의 하안단구 위에 축조된 성으로 한탄강과 합류하는 곳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다. 남벽과 북벽은 각각 단애를 활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지만 동벽은 동쪽에 형성된 개활지를 가로질러 축조되었다.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성은 현재 길이 약 60m 정도 동벽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벽은 한탄강에 접하여 50~60m 정도의 수직단에 축조되었고, 북벽도 15~20m 정도의 단애가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에 축조되었다. 동벽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철원 철새도래지

대한민국 대표 겨울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사진 © 문화재청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일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번식지와 겨울을 지내기 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새를 말한다.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는 철원평야 가운데 있으며, 겨울에는 땅속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나와 얼지 않기 때문에 철새들이 물과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겨울철에는 독수리와 같은 수리류도 볼 수 있으며, 두루미·재두루미 등의 귀한 새들이 와서 겨울을 지내고 일본에서 겨울을 보내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들도 이곳을 거쳐 북쪽으로 간다.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는 러시아·중국·일본 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서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의 겨울철새도래지를 대표하는 지역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포천 대교천 현무암 협곡

3가지의 '절리'를 볼 수 있는 협곡
천연기념물



사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대교천은 한탄강의 지류로 계곡이 좁고 깊어서 협곡이라고 하며, 총 길이는 약 1.5km 이다. 협곡은 굴삭 작용 및 마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폭 25m~40m, 높이는 약 30m에 이르는 하상지형으로 다양한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고, 현무암 평원이 유수에 의해 형성된 여러 형태의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며, 한반도 제4기 지질과 지형 발달을 이해하는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협곡의 양쪽 벽을 이루는 현무암 용암층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서 기둥 모양의 주상 절리, 수평 방향으로 쪼개진 판상 절리, 부채꼴 모양의 방사상 절리 등 여러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

포천 반월성

고구려의 산성
사적



사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90번길 19 의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산성이 있는 자리로, 고구려 때 쌓은 성이다. 현재 성의 옛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시설물로는 남쪽과 북쪽의 문터, 성벽 바깥쪽에 사각형 모양으로 덧붙여 만든 치성 4개소와 건물 터 6곳, 배수시설이었던 수구 터와 장수의 지휘대였던 장대 터,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웠던 망대 터 등이 있다.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30여기 이상의 소형 하식동굴
명승



사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경기 포천시 관인면 574-1번지 일원

명우리 주상절리는 한탄강의 대부분 협곡과 달리 하식에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협곡으로 높이는 20~30m 내외이며 길이는 약 4km이다. 협곡 구간에는 주상절리의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 동굴이 약 30여기 이상 형성되어 있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개성의 유명한 경치 8곳을 일컫는 '송도팔경'에 속하는 장단석벽이라 하여 그 경치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도감포)에서부터 북쪽으로 임진강을 거슬러 수 킬로미터에 걸쳐 아름다운 수직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가을이면 돌단풍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임진적벽으로 불리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7-1 일원

연천 재인폭포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한탄강 지형이 빚은 절경으로 '연천 7경' 중 으뜸가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평지가 움푹 내려앉으며 폭포를 이루게 되었다.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철원 소이산(용암대지)

신생대 제4기 현무암 용암류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현무암류 용암대지이다. 용암이 지표를 매워 평탄한 철원 용암대지를 형성할 때 기존의 산지가 용암에 매몰되지 않고 용암대지 상에 이처럼 돌출된 스텝토 관측이 가능하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오리

철원 직탕폭포

직탕폭포는 한탄강 상류에 기암절벽과 자연적인 - 자형 기암으로 이루어진 폭포로서 그 웅장함과 기묘함으로 속칭 '한국의 나이아가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탄강의 맑은 물과 풍부한 수량으로 자연미가 넘치는 이 폭포는 고석정과 불과 2Km 정도 상류에 위치한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직탕길 94

포천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인 포천 국립수목원은 500만㎡에 조성된 산림박물관 뿐 아니라 3,344종의 식물, 15개의 전문 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인조림, 8km에 이르는 삼림욕장, 백두산 호랑이등 15종의 희귀동물 야생동물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희귀조인 크낙새 서식지이며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031-540-2000

포천 산정호수

산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인 산정호수는 이름 그대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한다. 1925년 농수용 저수지로 만들어졌으며, 명성산을 비롯해 여러 높은 산봉우리, 자인사와 등룡폭포, 비선폭포 등이 있다. 1977년 3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봄·가을 호수의 밤안개가 절경을 이루어 호수 주변 산책길에 유명세를 타고 있다. 주변에 놀이공원, 조각공원, 보트장, 수영장, 썰매장 등이 조성되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02

설화와 자연의 길

제주



아름다운 섬, 전설을 품은 세계유산

옛날 옛적에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있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을 만들기로 결심한 할망은 치마폭으로 흙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섬 중앙부에 가장 높이 솟아오른 흙은 한라산이 되었고, 치마에서 떨어진 흙 부스러기들은 오름이 되었다. 섬의 형체가 완성될 즈음, 한라산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할망의 뇌리를 스쳤다. 고민하던 할망은 봉우리를 꺾어 바닷가로 던져버렸다. 남서쪽 해안에 떨어진 그 봉우리는 산방산이 되었다. 태생부터 신비로운 제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백여 차례가 넘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이 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화산지형뿐만 아니라 난대·온대·한대·고산지대의 동식물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신화와 전설, 당과 굿, 방언과 풍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인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개의 자연과학 분야인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을 동시에 달성한 지역이며, 제주해녀문화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도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

제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62

제주 만장굴

63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64

제주 서귀포 산방산

65

제주 서귀포 쇠소깍

66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67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68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설화와 자연의 길

서귀포시 · 제주시

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일찍부터 천혜의 관광지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다채로운 화산지형은 숨 막히는 절경을 선사한다.

북부에 위치한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여객터미널이 있어 제주의 관문이라 불린다. 교통의 요충지이자 제주의 행정, 교육, 상업,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제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천연기념물

제주 운진항에서 배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마라도는 남북이 긴 타원형의 섬이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만들어진 섬으로 생각되지만 분화구는 볼 수 없다. 20m 높이의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은 해풍과 파도의 합작품이다. 제주에서도 바람이 심한 곳이다 보니 거친 파도에 의해 생긴 해식동굴도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평평한 마라도는 짧은 풀로 뒤덮여 있어 봄과 여름에는 섬 전체가 푸릇푸릇 해진다. 가을이면 억새가 무성해져서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물결을 볼 수 있다.

한 바퀴를 도는데 1~2시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다채롭고 풍요롭다.

난대성 해조류와 해산 동물이 잘 자라는 이곳은 제주와도 식생이 다른 편이다.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해양 자원으로 인해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라도에는 최남단비가 세워져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大韓民國 最南端)'이 새겨진 비석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할망당'이 있다. 동글게 쌓은 돌담 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할망당은 해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신 곳이다. 이곳에 대한 마라도 주민들의 정성은 각별해서 지금도 일 년에 몇 차례씩 제를 올린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제주 만장굴

용암이 만든 거대한 동굴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용암동굴 가운데 하나다. 제주말로 '아주 깊다'는 의미의 '만쟁이거머리굴'로 불려온 만장굴은 10~3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58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총 길이 약 7.4km, 주 통로의 폭은 18m, 높이는 23m에 이르는 만장굴은 중간 부분의 천장이 함몰되어 3개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제2입구인데 1km만 탐방할 수 있다.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유선, 용암표석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굴 안에는 7.6m 높이의 용암석주도 있다. 용암석주란 천장에서 흘러내린 고드름 모양의 용암과 바닥에 쌓여 새순 모양으로 굳어진 용암이 만나 기둥을 형성한 것으로, 만장굴에 있는 것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용암석주로 꼽힌다. 전 세계에 있는 용암동굴 중에서도 내부의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는 만장굴은 국내 최대의 박쥐 서식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박쥐의 대표종인 제주관박쥐와 긴가락박쥐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탐방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마주칠 확률은 희박하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Tip 마라도 정기여객선 마라도로 가는 배는 운진항과 송악산항(산이수동항)에서 탈 수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전화로 실시간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ip. 김녕사굴 만장굴 부근에 위치한 용암동굴이다. 만장굴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만장굴과 김녕사굴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천장이 함몰되면서 서로 분리되었다. 굴 안에 거대한 구렁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61 제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사진 © 제주관광공사



62 제주 만장굴 | 사진 © 제주관광공사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절벽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천연기념물

산방산 앞쪽 바닷가에는 수천만 년 동안 쌓인 암벽이 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아서 용머리해안이라 불리는 이곳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 따위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파도에 파이고 깎여 기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절벽은 물결치듯 유연하게 굽어져 있는데, 층층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특히 움푹 들어간 굴방과 절벽에 새겨진 퇴적과 침식의 흔적은 아득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지형인 이곳은 한 바퀴 돌아보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63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사진 © 한국문화재단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3대 산으로 꼽히는 제주의 명산
명승

평평한 지대에 우뚝 서 있는 종 모양의 화산체로, 제주의 다른 화산과는 달리 정상에 분화구가 없다.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의 3대 산으로 꼽힌다. 서남쪽 중턱 절벽에 산방굴이라는 해식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부처를 모시고 있어 '산방굴사'라고도 한다. 산 정상 쪽에는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고, 암벽에는 생달나무, 육박나무, 지네발란, 석곡 등이 자생하고 있다.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천연기념물인 이곳은 희귀한 식물들이 많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산 정상 쪽에는 온난한 기후의 식물들이 펼쳐져 있고, 암벽에는 암벽에 붙어사는 희귀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 쇠소깍

민물과 해수의 만남
명승

서귀포시 하효동을 흐르는 효돈천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 생긴 깊은 웅덩이를 말한다. 쇠소는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의 연못'을 의미하고, 깍은 '끝'을 의미한다. 효돈천 끝자락에 위치한 쇠소깍은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 하나로 꼽힌다.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골짜기에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데, 푸르고 맑은 계곡물까지 더해져 신비로운 절경을 뽐낸다. 쇠소깍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며 자연이 빚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계속 내려가면 검은 모래로 유명한 쇠소깍 해변에 다다른다.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04



64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사진 © 제주관광공사



65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사진 © 제주관광공사

제주 선홀리 거문오름

점은 숲이 품고 있는 다양한 화산지형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오름은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기생 화산을 의미한다. 제주에 있는 360여 개의 오름 중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거문오름이 유일하다. 울창한 숲이 검은색으로 보여 거문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풍혈로 인해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해발 456미터의 오름은 말굽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상에 오르면 화산의 분화구가 한눈에 보인다. 분화구에는 작은 봉우리들과 꽃자왈이 있다. 꽃자왈은 암석들이 불규칙하게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용암류는 경사면을 따라 해안선까지 흘러가면서 용암동굴을 생성 시켰는데, 이것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라 부른다.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차물동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름 주변에 발달한 용암동굴로서는 규모와 길이가 세계적인 수준인데다가 독특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 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이곳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만들어놓은 갱도진지들과 제주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숯 가마 터 등도 남아 있어 역사탐방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Tip 거문오름 생태탐방로 트레킹 거문오름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만 트레킹이 허용된다. 예약은 희망 날짜의 전날 1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당일예약은 불가하다. 산행코스가기 때문에 등산화나 트레킹화가 필수고 스틱과 물을 제외한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매년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전예약 없이 거문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으며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코스도 가볼 수 있다.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일출이 장관인 거대한 성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명실상부 제주의 으뜸 명소인 성산일출봉은 바다에서 폭발한 수성 화산체다. 해저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층을 이루며 쌓인 이 섬은 바닷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삼면이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 지층구조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원래는 제주와 떨어져 있었으나 하천이 운반한 모래와 자갈 등이 쌓이면서 본섬과 이어지는 길이 생겨났다. '성산(城山)'은 푸른 바다에서 있는 웅장한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는 의미로, '일출봉(日出峰)'은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섬 전체에 걸쳐 있는 8만여 평의 사발 모양 분화구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분화구 둘레에는 99개의 기암이 솟아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절경이지만, 분화구 너머로 펼쳐지는 성산의 마을과 바다, 우도와 크고 작은 오름들은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매표소부터 정상까지 25분 정도 걸리는데,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느긋한 마음으로 오르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예로부터 유명해서 매년 12월 말일이 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제주성산 일출축제가 열린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자연이 깎아낸 병풍 같은 돌기둥
천연기념물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식으면 수축에 의해 균열이 생긴다. 암석 사이사이에 생긴 틈새를 '절리'라 하는데, 단면이 4~6각형인 기둥 모양의 수직절리를 '주상절리'라고 한다. 주상절리의 모양과 크기는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바다와 접하는 부분의 주상절리가 육지 쪽에 있는 것보다 더 뚜렷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대인 제주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는 다각형의 검은 돌기둥들이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30~40m 높이의 기둥들이 1km 정도 이어져 있는 장엄한 풍경은 현기증이 일어날 만큼 아찔하다. 절벽이 쌓여 있는 웅장한 돌기둥에 부딪치는 파도도 장관인데, 거칠게 밀려와 용솟음치던 푸른 파도가 하얀 포말로 부서져 내리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제주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36-30



66 제주 선홀리 거문오름 | 사진 © 한국문화재단



67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사진 © 한국문화재단



68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 제주 지역 통치의 중심 사적

조선 시대에 제주 지역 통치의 중심지로, 주변에 있던 관아 시설들을 말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탐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여러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제주목 관아가 있던 장소가 고대부터 제주의 중심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관아 건물인 제주 관덕정(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으나 이후 고궁과 자문을 거쳐 복원했다.

Tip 돌하르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주 관덕정 앞에 있는 돌하르방은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45개의 원조 돌하르방에 속한다. '우석목', '무석목', '백수머리' 등으로 불린 이 석상은 성문 앞에 세워져 경계표지, 금지의 표시,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승의 기능과 유사하다. '돌하르방'은 돌 할아버지의 제주 방언으로, 1970년대에 문화재 이름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25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500~800년생 비자나무 군락이 자생하는 숲이다. 마을 제사 때 쓰던 비자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져 숲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은 단일 수종의 숲으로는 세계적인 규모로 꼽히는데, 숲 한가운데 있는 800년 넘은 거목은 비자나무의 조상목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이 짙은 숲에는 산책로가 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광치기해변

성산일출봉에서 십지코지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초록 이끼가 뒤덮고 있는 독특한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썰물 때는 더욱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데다가 근처에 유채꽃 단지가 있어서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224-33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제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제주에 정착한 사진작가 김영갑이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다. 두모악은 한라산의 옛 이름으로, 이곳엔 20여 년 동안 작업한 작품들과 작가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의 비경이 담긴 고풍하고 황홀한 작품에서는 작가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고, 손수 꾸민 아기자기한 정원에도 제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로 137
064-784-9907

사라봉

제주시를 대표하는 오름으로, 도심에서 가까운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고운 비단'을 의미하는 사라봉은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정상에 오르면 바다와 한라산, 제주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도 근사하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일본군 군사시설인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국가등록문화재)가 남아 있으며, 사라봉 어귀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칠머리당도 있다. 이곳에선 매년 음력 2월마다 제주도를 찾아오는 영등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굿을 한다. 이 제의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 하는데,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로 나뉜다. 해녀와 어부 등이 참여하는 이 굿은 제주도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Tip 영등신(영등할망) 영등할망으로도 불리는 바람의 신이다. 강남천리곡 또는 외눈 백기섬에서 온 영등신은 매년 음력 2월 1일에 제주도로 들어왔다가 2월 15일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씨를 뿌려주고 소라, 전복, 미역 등을 잘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농작물과 해산물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농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대

십지코지

바다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지형을 '곶'이라 하는데, 곶을 제주 방언으로 '코지'라 한다. 성산일출봉과 넘실대는 파도가 어우러진 해안절경으로 유명하다. 송이라 불리는 붉은 화산재로 덮인 언덕에는 하얀 등대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다.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봉수대는 왜구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주변에 유채꽃이 많아 봄에 특히 사랑받는 장소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세화해변

하얀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해변이다. 전반적으로 고풍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세화 민속 5일장과 벨롱장이 열릴 땐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신한다. 제주도민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오일장과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어울리는 벨롱장은 구경하는 재미가

침 만남 침 문화유산

쏟아질 만큼 일정이 맞으면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Tip 장이 열리는 날 세화민속오일장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열린다. 벨롱장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오일장과 컵차는 날에는 열리지 않는다. 날씨가 나쁘면 취소되거나 장소가 옮겨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변

월정리는 '달이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 위로 밀려오는 파도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다. 수심이 얇아 물놀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파도의 높이가 일정해서 서핑을 즐기기에 딱 적이다. 개성 있는 카페도 많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480-1

제주해녀박물관

해녀(국가무형문화재)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여자를 말한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녀는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을 가진 제주 여성의 상징이자 전통적 해양문화의 산증인이다. 바다와 공존하며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의 문화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해녀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은 해녀들이 기부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를 비롯하여 해녀들의 살림살이와 공동체, 세시풍속, 음식문화 등이 다양한 유물과 모형,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앞쪽 정원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비가 세워져 있다. 일제의 수탈에 고통받던 해녀들은 1931년부터 일제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구좌읍과 성산읍, 우도면 일대에서 펼쳐진 항일운동에는 일반 농민들과 청년들도 가담했다. 시위는 1932년 1월까지 지속됐는데,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해녀들의 집결지가 바로 제주해녀항일운동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자주독립 정신을 바탕으로 펼쳐진 제주해녀항일운동은 국내 최대의 여성 주도 항일투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Tip 제주의 풍속 '신구간(新舊間)

제주에서는 인간사를 관장하던 모든 신들이 매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이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하는데, "묵은 철과 새 철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들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이사나 집수리 등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이 시기에 이사를 가장 많이 한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064-782-9898

제주 천지연폭포

천연기념물의 보고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뜻의 천지연은 이름만큼이나 황홀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기암절벽에서 연못으로 떨어지는 맑고 세찬 물줄기의 모습은 가슴이 확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해 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아열대성·난대성의 각종 상록수와 양치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천지연폭포 일대는 제주 천지연 단대림(천연기념물)으로 지정되어 있다. 희귀식물인 솔잎난 등이 자라는 이곳은 제주 천지연 답팔수 자생지(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따뜻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답팔수는 우리나라에 몇 그루밖에 없는 희귀수종으로, 천지연 일대는 답팔수가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이다. 깊이가 20미터에 달하는 천지연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물길이가 2미터까지 자라는 무태장어는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고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열대성 물고기다. 한여름에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천지연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히 둘러볼 수 있다. 산책로 끝에 위치한 폭포는 오후 10시까지 개장하는데, 조명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야경 사진 명소로 꼽힌다.

Tip 용과 여의주 천지연폭포 근처에는 용 전설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신화와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용은 바다, 강, 연못 등에 살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 수신(水神) 또는 해신(海神)으로 숭배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왕(龍王)은 바로 용을 신격화한 말이다. 조형물 가운데 있는 금빛 구슬은 용이 떨어뜨리고 간 여의주다. 불교에서 말하는 여의주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는 영묘한 구슬로, 진리나 불덕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2-15

사려니숲길

산림힐링을 즐기기에 적합한 숲길 트레킹코스도 제주도가 해양자원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도 풍부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관광지이다. 전형적인 온대성 산지대에 해당하는 숲길 양쪽을 따라 졸참나무, 서어나무, 매죽나무, 산딸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라는 울창한 자연림이 넓게 펼쳐져 있다. 오소리와 제주족제비를 비롯한 포유류, 팔색조와 참매를 비롯한 조류, 쇠살모사를 비롯한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도 서식하고 있다. 2009년 '제주시 습은 비경 31'로 선정되었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산 137-1

소릿길 1

고창 · 남원 · 임실 · 전주

소릿길 1은 음식과 예향의 도시이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의 고장 임실,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이자 동편제가 탄생한 남원, 판소리를 중흥시킨 생물권보존지역 고창으로 이어진다. 이 도시들을 따라 유려하고 애절하게 흘러가는 소리에는 겨레의 얼과 혼이, 예술로 승화된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고창 소릿길 1

71

고창판소리박물관

감각으로 만나는 판소리 세계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자리'라는 뜻이다.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연의 모든 소리를 의미한다.

고창군에 있는 고창판소리박물관은 판소리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중에게 판소리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박물관이 있는 곳은 신재효의 고택 국가민속문화재이 있던 자리였는데, 판소리 이론가·비평가·후원자였던 신재효는 판소리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물관에는 판소리의 역사, 특징, 예술세계, 전승 계보 등이 사진, 모형, 영상, 소리북, 사설집, 음반 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신재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으며 진채선, 김소희 등과 같은 고창의 명창들을 조명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박물관 뒤쪽에는 고창 신재효 고택이 있다. 185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소박한 초가집은 사랑채다. 딸년까지 이 집에 살았던 신재효는 명창들을 길러내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등 여섯 마당의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고 개작했다.

Tip 판소리 다섯 마당

하나의 독립된 출거리를 가진 판소리 작품을 마당이라 한다.

판소리는 본래 열두 마당이 있었는데, 현재 전승되는 것은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로 이를 판소리 다섯 마당이라 한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00 / 063-560-8061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고창읍성

사적

조선 시대에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곽으로 '묘양성'이라고도 한다.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던 이곳은 읍성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성 안에 있던 건물들은 전란을 겪는 동안 소실되었으나 현재는 상당 부분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다.



사진 © 문화재청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고창 신재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판소리 이론가이면서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1812~1884)가 살던 집으로 1899년(광무 3년) 그의 아들이 고쳐지었다고 한다. 이 집은 중요 민속자료 지정 전까지 고창 경찰서의 부속 건물로 쓰였다. 현재는 많이 개조되고 변형된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옛 모습을 되찾고자 다시 수리하였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전주 소릿길 1

72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보고(寶庫)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공동체가 끊임없이 재창작해 온 지식, 기술, 의식, 공연예술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며 주로 구전을 통해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합행정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음악과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 악기, 의상, 장신구, 매듭, 탈 등의 유물들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준다.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연이 전통의 멋과 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 063-280-1400

사진 ©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전주한옥마을

전주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상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이에 대항하여 자연스럽게 조성된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있는 한옥군이다.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인기 있는 여행지인 한옥마을에는 문화재와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전주 경기전(사적)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조선태조어진(국보)이 모셔져 있는데,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수려한 주변 경관으로 인해 사시사철 방문객들로 붐빈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연회를 열었던 오목대에서는 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맞닿아 있는 처마와 농성을 이루고 있는 기와에서는 여유와 풍류가 느껴진다.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전주향교(사적), 전주읍성의 남문인 전주 풍남문(보물)과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이 혼합된 전주 전동성당(사적)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자만벽화마을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형성된 마을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려진 예쁜 벽화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산뜻한 색으로 채워진 오밀조밀한 골목에는 개성 있는 카페들도 많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50-158

남원 소릿길 1

73

남원 광한루원

신선사상이 담겨 있는 춘향전의 무대 명승

남원 광한루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각 중 하나다. 서울 경희루, 평양 부벽루, 진주 축서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광한루는 남원으로 유배를 온 조선의 재상 황희가 1419년에 세운 것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38년(인조 16년)에 재건한 것이다.

광한루가 있는 정원을 광한루원이라 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조경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시대 조경문화에는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성리학적 세계관, 신선사상 등이 담겨 있다. 광한루원 역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광한루는 달나라 궁전을 의미하고 정원에 있는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한다. 연못 위에 설치된 다리는 견우와 직녀가 칠월 칠석에 만나는 오작교이며, 연못 안에 만들어 놓은 세 개의 섬은 신선이 사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상징한다.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을 표현해 놓은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주인공인 성춘향과 이도령이 인연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엔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의 영정을 모신 춘향사당과 춘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춘향관, 춘향이 살던 집을 재현해 놓은 초가집도 있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시대 이름난 화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1434년(세종 16년)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38년(인조 16년) 다시 지은 것이다.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063-625-4861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송흥록·박초월 생가 동편제 텃자리

지리산 둘레길 2코스에 있는 운봉읍 화수리에는 남원 황산대첩 비지(사적)가 있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적을 무찌른 업적을 기념하여 세운 황산대첩비가 있던 자리로, 마을이 비(碑) 앞에 있다 하여 비전(碑前)으로 불리게 된 이 마을은 가왕 송흥록과 국장 박초월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송흥록은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다. 동편제는 전라도 동부지역(구례, 남원, 순창 등)에서 발달한 소리를 말한다. 판소리 명창 중에서도 기량이 뛰어난 가왕(歌王)으로 불린 송흥록은 느린 장단을 응용하여 음악적인 변화를 주고 판소리의 표현영역을 확장시켰다.

판소리 활성화에 기여한 박초월은 타고난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덕분에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송흥록의 손자이자 동편제의 명창인 송만갑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운 박초월은 여러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내고 창극 및 여성극단 등에서 활동했다. 200여 명의 제자를 양성해 판소리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박초월은 현대 판소리사를 대표하는 명창으로 꼽힌다.

송흥록과 박초월의 생가 근처에는 국악의 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국악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전시관과 국악 공연장이 있으며 국악기 제작 및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Tip 서편제 전라도 서남부 평야 지역(광주, 나주, 보성 등)에서 발달한 소리로, 동편제는 선이 굵고 깨끗하고 호방한 반면, 서편제는 부드럽고 정교하며 세련된 기교가 많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7
063-625-6764 (공연 및 체험은 사전 예약)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임실 소릿길 1

74

필봉농악전수관

필봉농악 발생지에서 즐기는 신명나는 소리

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농사를 지을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이다.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대중적인 공연예술로, 풍물, 두레, 굿이라고도 한다. 임실필봉농악 **국가무형문화재**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전승되어 온 마을 풍물굿이다. 전라도 동부지역의 농악을 좌도농악이라 하는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필봉농악은 좌도농악을 대표한다. 처음엔 단순한 농악이었으나 1920년경 상쇠(농악대의 우두머리, 팽과리 제1연주자) 박학삼을 초빙한 것을 계기로 수준 높은 농악으로 발전했다. 가락이 힘차고 씩씩한 필봉농악은 개인의 기교보다는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봉농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필봉농악전수관은 전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방학 때에는 전국에서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전수관이 있는 곳은 '필봉문화촌'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필봉농악의 역사를 담은 풍물전시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및 야외공연장, 한옥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취락원이 마련되어 있다.

임실필봉농악 필봉마을에는 예로부터 단순한 농악이 전승되어 왔는데,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이 된 것은 1920년경에 상쇠 박학삼을 초빙하여 그의 농악을 배우면서부터라고 한다. 임실필봉농악은 농악의 대표격인 팽과리 가락(쇠가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가락이 힘차고 씩씩하며,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한다.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 063-643-1902

사진 © 한국문화재단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임실치즈테마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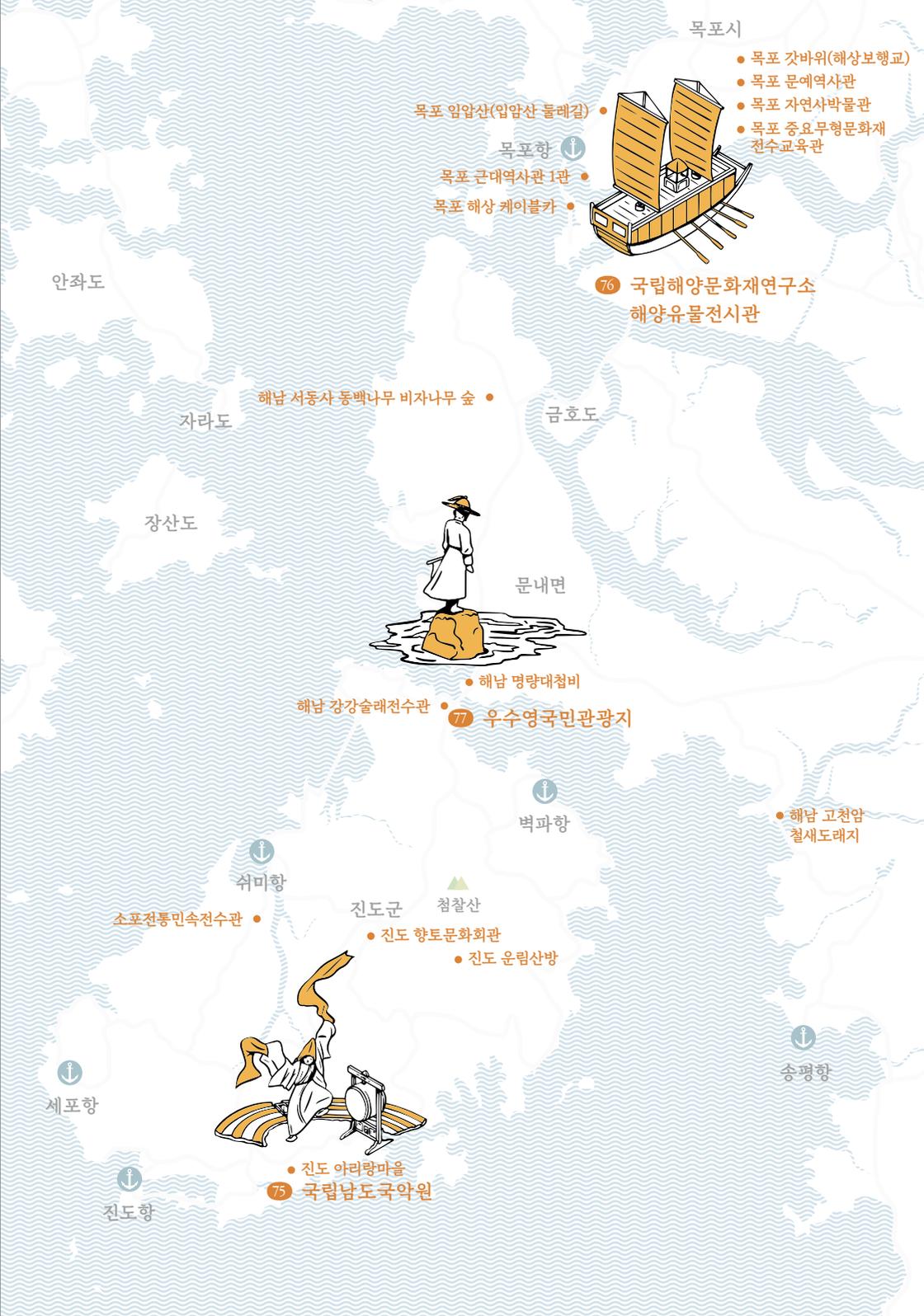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는 1967년 산양 두 마리로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를 만들었다. 이후 치즈는 임실의 특산품이 되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로, 임실치즈를 알아보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만들어볼 수도 있어서 가족단위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063-643-2300

소릿길 2

목포 · 진도 · 해남

소릿길 2는 육지와 바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항구도시 목포, 다수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원형이 살아있는 진도, 남해의 비경을 간직한 풍요로운 전통의 고장 해남으로 이어진다. 민족의 한과 흥이 담긴 건드러진 선율은 다도해의 풍경처럼 다채롭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떠올리는 역동적인 장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신명나는 놀이판에 다다르게 된다.



진도 소릿길 2

75

국립남도국악원

남도 전통예술의 산실

진도 남쪽 여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유서 깊은 남도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악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공연 등을 위해 설립됐다. '보배로운 소리의 전당'이라는 뜻의 진악당, 여귀산과 귀성포구를 감상할 수 있는 달빛마당, 하늘 가득한 별을 볼 수 있는 별빛마당에서는 다채로운 상설 및 기획 공연이 펼쳐진다. 국악원 안에서는 물론 외부 공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악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공연 관람, 국악 배우기, 남도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주말 문화체험도 운영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3818 / 061-540-4031

사진 © 국립남도국악원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진도 윤림산방

명승

진도 윤림산방은 넓고 울창한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이 있는 침찰산과 남도전통회화의 산실로 유명한 명소인 윤림산방 등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이다. 윤림산방은 조선 말기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조성하여 말년에 거처하면서 창작과 저술 활동을 하던 곳으로서 「소치실록」에 따르면 큰 정원을 다듬고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선경(仙境)으로 꾸민 곳이다.



사진 © 문화재청

전남 진도군 의신면 윤림산방로 315
061-540-6286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소포전통민속전수관

자연마을 단위로는 진도군에서 제일 큰 소포마을은 진도대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여객선으로 목포-진도 사이를 왕래하던 유일한 나루터였다. 김정팔로 유명한 이곳은 진도소포걸군농악(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남도잡가(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조도땃배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배틀노래, 명다리굿 등 많은 민속놀이와 전통 민요가 옛 모습 그대로 전승되는 곳이기도 하다. 소포걸군농악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장미 마련을 위하여 각처를 돌아다니며 풍악을 치는 무리인 경골패로 가장하여 적진을 탐색하고 우군에게 알려주어 승리 한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남도잡가>는 남도 지방의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래로, <보편>, <화초사거리>, <흥타령>, <새타령>, <성주풀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도땃배노래>는 진도군 조도면 일원의 어민들이 조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민요다. 땃배는 땃그물로 조기잡이 하는 배를 의미한다. <배틀노래>는 배 째는 일을 소재로 한 여성 노동요인데, 사실이 거의 일정하게 짜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다리굿>은 사주팔자에 명이 짧다고 나온 어린아이를 위한 의례다. 수명을 길게 이어주기 위해 명진(命巾)으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징검다리를 만들고 굿을 한다. 우리 가락과 춤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소포마을에 세워진 소포전통 민속전수관에서는 생생한 남도소리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당일 또는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소포걸군농악에서 최초로 시작된 진도북춤과 상모 시연을 관람하고, 구성진 남도민요와 흥겨운 국악, 한바탕 신명하게 노는 강강술래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791
061-543-0505
(예약제 운영, 사전 문의 필수)

진도 아리랑마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있는 한민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보존, 육성하고자 건립되었다. 각 지역별, 세대별, 매체별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리랑에 관한 기록과 우리 생활 속에서의 아리랑, 세계에 알려져 있는 세계 속의 아리랑을 전시하고 있다. 여귀산 남쪽 자락으로 오봉산(五峰山) 봉수대 밑 동내인 이 지역은 '항구미라' 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어촌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이 여귀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수평선상에 제주도의 한라산이 떠오르고 새벽이면 수평선상에 샛별인 금성이 떠올라 예부터 노인 장수촌으로 불려왔다. 아리랑 체험관을 비롯해 야외 놀이마당, 공원 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아리랑과 관련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진도 향토문화회관

진도에는 강강술래(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진도 찻김굿(국가무형문화재), 진도 다시래기(국가무형문화재), 남도 들노래(국가무형문화재), 진도 북놀이(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진도 아리랑 등이 전해지고 있다. 진도 향토문화회관은 진도의 무형 유산을 전승·보존하는 곳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진도 찻김굿>은 죽은 이의 영혼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도지역의 곳이다. 원한을 씻어준다

하여 찻김굿이라 부르는데,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의 복락도 기원한다.

<진도 다시래기>는 상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전문 예능인들을 불러 벌이는 상여놀이를 말한다. 상실의 슬픔을 노래와 춤으로 극복하려는 송별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남도 들노래>는 진도 지방의 농부들이 농사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크게 논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밭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흥겹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진도 북놀이>는 양손에 북채를 쥐고 어깨에 멘 북을 장구 치듯이 연주하는 놀이를 말한다. 북의 생동감과 장구의 역동성이 합쳐진 이 놀이는 자유로운 가락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대표적인 전통 민요다. 인류 보편의 주제와 감정이 담긴 단순한 곡조는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며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어 왔다.

가장 유명한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중에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라는 후렴구가 유명한 '진도아리랑'은 대표적인 남도민요다. 기존의 사실을 바탕으로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 선후창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공동체의 삶을 가락에 실어 노래했는데, 특히 여성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Tip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무료)

- 일시 2~12월 매주 토요일 14:00부터
- 장소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 내용 다시래기, 진도북춤, 진도민가, 진도아리랑, 사물놀이, 남도민요 등

전남 진도군 진도를 진도대로 7197
061-540-6253

목포 소릿길 2

7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바다에서 건진 난파선과 유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바닷길을 개척하고 해양활동을 펼쳤다. 물자 수송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역선들은 거친 바다와 싸워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귀한 물건들을 실은 채 침몰한 배들은 보물선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수백 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배들은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고, 함께 잠들어있던 보물들도 물 위로 올라왔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발견된 오래된 배의 잔해와 유물을 수중문화재 또는 해양 문화재라고 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해양유물전시관은 바로 이러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전국에서 발굴된 모든 해양유물이 모이는 이곳에선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는 물론 선박 건조기술의 발달과정과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실내에는 고려 시대의 배가 실물과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고, 야외에는 조선 시대의 배가 재현되어 있어 생생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해저 유물들도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976년에 발굴된 신안선은 해상 실크로드와 중세 동아시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 꼽힌다.



전남 목포시 남동로 136 / 061-270-3001

사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목포 갯바위

천연기념물

목포 갯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해 풍화작용과 해식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로서 사그늘을 쓴 사람의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화혈은 노출암괴에서 수분이 암석 내부로 쉽게 스며드는 부위(균열 등)에 발달하며, 스며든 수분의 부피 변화로 야기되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이 보다 쉽게 입상(粒狀)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일단 풍화혈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곳은 햇빛에 가려져 더욱 많은 습기가 모여 빠른 속도로 풍화되면서 풍화혈은 암석 내부로 확대된다.



사진 © 목포시

목포해안 갯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해역의 풍화환경에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벗어난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며 다른 지역 풍화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번지 인접해역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목포 근대역사관 1관

목포는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다.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된 구 목포 일본영사관은 지금의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00년 건립되어 1907년까지 일본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1914년부터 목포부청사, 1974년부터 목포시립도서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 2014년에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으로 개관하였다.

전남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
061-242-0340

목포 갯바위 해상보행교

예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갯바위를 해상에서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물 위에 떠있는 보행교다. 총연장 298m, 폭 3.6~4.6m로 밀물 땀 약 1m 정도 올라왔다가 썰물 때는 바닷물을 따라 내려간다. 밤에는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남 목포시 남동로 166-1

목포 문예역사관

목포의 다양한 향토 문화예술의 자료 전시장인 목포 문예역사관은 목포의 문화예술시설들이 모여있는 갯바위문화타운의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연결되어 있다. 문예역사관은 수석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목포의 문화예술을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음악, 공예 등으로 세분화시켜 문화예술사 자료를 전시해둔 문예역사실, 세계

문화전시실 등의 볼거리와 함께 특히 소지 허련부터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임인 허림 등의 호남 남종화의 화맥을 살펴보고 윤림산방 일가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윤림산방 4대 작품실의 수목화들, 예술원 회원인 오승우 화백의 굵고 투박하면서 힘이 넘치는 필치와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채들까지 수십 점의 대작이 있는 기증 작품실은 여느 박물관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남 목포시 남동로 149
061-276-6331

목포 자연사박물관

지구 46억 년 자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공룡 화석, 광물, 곤충, 식물, 조류, 포유류, 해양생물 등 방대한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알둥지 화석인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천연기념물)도 있다.

Tip 자연사박물관 입장권으로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전체 관람이 가능하다.

전남 목포시 남동로 135
061-274-3655

목포 입암산(입암산 둘레길)

입암산은 높이 121m의 산으로 남동쪽 끝에는 천연기념물 갯바위가 있다. 산 높이는 낮지만 날씨가 좋은 날 정상에 오르면 목포 시가지는 물론 멀리 영암 월출산, 은적산, 현대삼호중공업, 압해대교 등이 모두 시원스럽게 조망되는 산이다. 입암산 둘레길은 달맞이공원-갯바위굴쉼터-고독굴쉼터-고양이바위쉼터-해태바위쉼터-황새바위쉼터-범바위쉼터-선운사-동광농장-달맞이공원의 3.5km 코스로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00번길 25

목포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갯바위 공원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기법을 전승 보존시켜 민족 문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건립하였다. 전시실에는 옥장(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장주원 선생의 신비스러운 옥공예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 45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공방동은 전통 옥공예의 맥을 잇고 재현하기 위한 전수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진귀한 옥공예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전남 목포시 남동로 83
061-277-1594

목포 해상 케이블카

목포 시내 북향 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유달산 정상부에서 'ㄱ' 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하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이다. 다도해의 금빛 낮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총 길이 3.23km의 압도적인 탑승거리와 볼거리로 아시아 최고의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186
061-244-2600

해남 소릿길 2

77

우수영국민관광지

명량대첩의 현장

조선 시대의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왜구가 자주 출몰했다.

조정에서는 이곳에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는 주진을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볼 때 오른쪽을 담당하는 곳을 우수영, 왼쪽을 담당하는 곳을 좌수영이라 했다. 해남은 우수영이 있던 지역으로, 명량대첩을 기념하고 옛 성지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 우수영국민관광지다.

명량대첩은 1597년(선조 30년) 이순신 장군이 명량(울돌목)에서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크게 이긴 해전을 말한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에 있는 울돌목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해협이다. 급류가 암초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하여 '울돌목(소리를 내어 우는 바다 길목)'이라 불렀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명량(鳴梁)'이다.

울돌목을 바라보는 위치에 만들어진 명량대첩기념공원에는 판옥선을 본떠서 만든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이 있다. 이곳에선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거북선, 각종 무기, 세계 해전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전방대에서는 울돌목과 진도대교, 진도타워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우렁찬 굉음을 내는 울돌목 앞에는 고뇌하는 성웅 이순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 대부분의 이순신 동상과는 달리, 도포를 입고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

사진 © 해남군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해남 명량대첩비

보물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1688년(숙종 14년)에 세운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으로 옮겨졌던 것을 2011년에 원래 있던 자리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비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른 상황과 명량대첩이 갖는 의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 © 문화재청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34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해남 강강술래전수관

강강술래(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는 전라남도 해안지방에서 추석을 전후해 펼쳐진 부녀자들의 집단놀이이다. 밤중에 둥근달이 떠오르면 여자들이 손을 맞잡고 오른쪽으로 돌며 둥근 원을 그려나가는데, 소리 잘하는 사람이 선장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하며 받는 소리를 한다. 처음엔 느린 가락으로 부르다가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나중엔 뛰는 듯이 춤을 추게 된다. 둥근 원을 그리는 원무가 기본이지만, 여기에 남생이 놀이, 고사리 꺾기, 청어 엮기, 기와 밟기, 문지가 놀이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강강술래'라는 이름은 후렴구에서 유래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달이 밝은 밤에 축제를 벌인 원시 시대 풍습에서 비롯된 놀이로 추정되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아군의 숫자가 많다고 위장하기 위해 마을 부녀자들을 모아 모닥불 주위를 돌게 한 것에서 연유했다는 설도 있다. 강강술래전수관은 강강술래를 보급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해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강강술래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강강술래 전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강강술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
061-532-8810

해남 고천암 칠새도래지

50만평의 광활한 갈대밭을 배경으로 수십만 마리의 가장오리가 해 질 녘에 군무하는 모습은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고천암 갈대밭은 고천암호에는 14Km의 둘레를 따라 갈대들이 광활하게 서식하고 있고, 해남읍 부호리에서 화산면 연곡리까지 3Km의 갈대밭은 50만 평으로 국내 최대의 갈대군락지이다. 또한 고천암 갈대밭에는 멧황새, 독수리 등 희귀 조류는 물론 전 세계 98%의 가장오리가 겨울을 나면서 환상적인 군무를 하기도 한다. 12월부터 2월 까지 가장오리들이 군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절정의 시간은 해남이와 동틀 무렵이다.

Tip 칠새 관찰의 유의할 점 새들은 경계심이 많기에 빨간색 옷차림을 피하고 돌을 던지거나 차경적, 폭음탄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방도로는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산 82-8
061-530-5331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명승)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도립공원이다. 두륜산은 중국 곤륜산의 '륜'과 백두산의 '두'자를 따서 두륜산으로 불려다고 한다. 해남의 영봉이며 여덟 개의 높고 낮은 연봉으로 이루어진 규모 있는 산이다. 8개 봉우리로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이 여덟 봉우리는 둥근 원형으로 마치 거인이 남해를 향해 오른손을 모아 든 듯한 형상이다. 오른손을 가지런히 펴고 엄지를 집게손가락에 붙인 다음 손가락 끝을 당겨 오목하게 물을 받을 듯 만들면 영락없는 두륜산의 지세가 된다. 특히 대흥사 해탈문에서 바라보는 두륜산은 그 모양이 부처가 누워있는 와불의 형세를 나타낸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8-1 외
061-530-5543

해남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땅끝마을에 새로 개관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복사본이 아닌 실물 표본만으로 전시된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의 해양자연사박물관이다.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세계적인 화석류와 어류, 상어류와 갑각류, 육지 생물 표본과, 남극 생물 표본 등 1,500여 종에 5만 6,000여 점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89
061-535-2110

해남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 숲

운거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대흥사의 말사인 서동사(瑞洞寺) 근방에 있는 동백나무와 비자나무가 서로 혼재하며, 군락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숲으로 경관적, 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수령과 식생 분포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2011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산 45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으로 집터 뒤로는 덕음산을 두고, 앞에는 벼루봉과 그 오른쪽에 필봉이 자리 잡고 있는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입구에는 녹우당을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있고 뒷산에는 500여 년 된 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이 우거져 있다. 윤두서 자화상(국보), 산중신곡집(보물), 어부사시사집등의 지정문화재와 3천여 점의 많은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061-530-5856

왕가의 길

강화 · 광주 · 김포 · 서울 · 수원 · 화성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역사 여행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서울은 백제의 수도였을 때 위례성 또는 한성이라 불렸고 조선의 수도였을 때 한양이라 불렸다. 조선 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도로 존재해 온 이곳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압축된 곳으로, 특히 조선 역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궁궐이 다섯 개나 있다 보니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적과 유물로 남아 있는 풍성한 이야기들은 수원과 화성, 김포와 강화로 확장된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길은 도성 안과 밖을 연결하는 길로, 켜켜이 쌓여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길 위에는 왕실의 위엄과 화려한 문화, 번영과 위기의 순간들이 중첩되어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1

남한산성

82

수원 화성

83

종묘

84

창덕궁

85

화성 융릉과 건릉

86

강화 고인돌 유적

87

강화 전등사

88

경복궁

89

김포 장릉

왕가의 길 1

서울 · 수원 · 화성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중심 수원을 거쳐 경기도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화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조선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왕이 살던 궁궐을 비롯하여 왕의 영혼을 모신 사당, 수도를 지킨 산성, 치밀하게 설계된 신도시, 왕의 육신이 잠들어 있는 능에는 조선의 기술, 예술, 의례, 생활문화, 정신세계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 서울 한국의집

남산서울타워

용산구

한강

동작구

관악구

관악산

참만남 참문화유산

아차산

한강

강동구

올림픽공원

● 서울 한국문화의집 KOUS

송파구



81 남한산성

남한산

수정구

남한산성

한양 방어를 위한 조선 시대의 성곽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는 명(明)과 가깝게 지내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명과 대치하고 있던 후금(後金)은 1627년(인조 5년) 조선을 침략 하였는데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이 전쟁을 계기로 후금과 조선은 '형제 관계를 맺었으나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후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후금은 대군을 끌고 다시 쳐들어왔다. 1636년(인조 14년)에 일어난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 하는데, 이때 인조가 피신한 곳이 남한산성이었다.

순식간에 한양으로 진격해 온 청의 군대는 한강을 건너와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당시 성 안에 있던 식량은 두 달 분량도 되지 않았다. 고립무원 상태로 버티던 조선은 강화도까지 함락되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남한산성을 스스로 걸어 나온 인조는 청의 군대가 머물고 있던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굴욕적인 협정을 맺었다. 청태종은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울 것을 강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 삼전도비사적이다.

패배의 역사가 남아 있지만 남한산성 자체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다.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킨 이곳은 673년(문무왕 13년)에 쌓은 주장성의 옛 터를 활용하여 1624년(인조 2년)에 다시 고쳐 쌓은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개축이 진행됐는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와 서양 무기의 도입은 남한산성 축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지어진 성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동·서·남문루와 방어시설, 군사훈련시설, 관청 등이 남아 있다. 주목할 만한 건물로는 남한산성 행궁 사적이 있다. 정무시설 뿐만 아니라 종묘사직의 위패를 봉안한 건물까지 있는 이곳은 남한산성이 유사시에 임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서울 삼전도비 조선에 조공을 바쳐오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면서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결국 인조가 한강가의 삼전도 나루터에서 항복을 하면서 강화협정을 맺게 되었고, 청태종이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도록 강요하여 세운 비석이 서울 삼전도비이다.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로서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3
031-743-6610
사진 © 한국문화재단



창덕궁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1405년(태종 5년)에 세워진 조선의 별궁이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창경궁과 함께 불에 타 버렸으나 제일 먼저 다시 지어졌다. 경복궁이 증진되기 전까지 조선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경복궁의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질서정연하게 지어진 반면, 창덕궁은 자연지형에 맞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자유롭게 지어졌다. 특히 왕실의 정원인 후원은 인공적인 건축물마저 숲의 일부로 보일 만큼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창덕궁은 임금과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던 외전과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인 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덕궁의 정문이자 외전이 시작되는 창덕궁 돈화문^{보물}은 궁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09년(광해군 원년)에 재건되었다. 어진 정치를 펼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창덕궁 인정전^{국보}은 즉위식, 결혼식, 세자 책봉식,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곁에서 볼 땐 2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실내에는 아름다운 천장과 일월오악도라는 인상적인 병풍이 있다.

창경궁과 경계를 이루는 담을 따라 올라가면 후원 초입에 위치한 부용지에 다다르게 된다. 창덕궁에 있는 연못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이곳엔 창덕궁 부용정^{보물}이 자리하고 있다. 북쪽은 간결하고 남쪽은 화려하게 만든 이 독특한 건물은 한국 정자 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부용지 건너편에 있는 언덕에는 2층짜리 누각인 창덕궁 주합루^{보물}가 있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지어진 주합루는 학문을 연마하던 곳으로, 1층은 왕실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이었고 2층은 사방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열람실이었다.



창덕궁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으로 '돈화(敦化)'라는 말은 원래 중용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돈화문은 현존하는 궁궐의 대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1412년 5월에 세워졌으며 1609년(광해군 원년)에 중수(重修)했다고 한다.

창덕궁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인정(仁政)'은 '어진 정치'라는 뜻이며, 인정전은 창덕궁의 법전(法殿)이 된다.

창덕궁 부용정 창덕궁 후원의 대표적인 방지(方池)인 이 연못의 남쪽 변에 부용정이 자리 잡고 있다. 부용정은 궁궐지에 따르면 1707년(숙종 33년)에 이곳에 택수재(澤水齋)를 지었는데, 정조 때 이를 고쳐 짓고 이름을 '부용정(芙蓉亭)'이라 바꾸었다고 한다.

창덕궁 주합루는 창덕궁 후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창덕궁 후원에 어재·어필을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한 2층 건물로 정조의 정책 개발과 개혁 정치, 조선 중기 문예부흥의 산실로서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공간이며, 정조가 지은 어재와 어필, 어진, 인장 등을 보관하였던 장소이다.

Tip 후원 관람 예약 창덕궁 후원 관람은 홈페이지(www.cdg.go.kr)를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관람 희망일 6일 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매가 이루어진다. 전화 예매 및 관람 당일 인터넷 예매는 불가능하지만, 남아있는 인터넷 예매분은 현장판매표로 전환되어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02-3668-2300
사진 © 한국문화재단

경복궁

한양에 세운 조선왕조 최초의 궁궐 사적

1392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395년 조선왕조 최초의 궁궐이자 제일의 법궁(法宮, 임금이는 궁궐)인 경복궁을 완성했다. 도성 북쪽 북악산 기슭에 있는 경복궁은 풍수지리상 명당에 해당되는데, 고대부터 전해오던 도성 건물 배치 형식을 따라 궁의 왼쪽에는 종묘가,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원래 사정문(四正門)으로 불렸으나 1425년(세종 7년) 광화문으로 바꾸었다. 왕실의 권위가 느껴지는 당당한 궐문 안쪽에는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왕이 업무를 보는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복궁 근정전^{국보}이 있다. 궁궐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근정전은 중대한 의식이 거행되던 곳으로, 왕실의 상징이자 경복궁의 중심이다. 궁궐 뒷부분에는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에 있는 연못에는 경복궁 경회루^{국보}가 있다. 연회 장소로 사용된 경회루는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주변 풍경과 어우러진 운치 있는 모습으로 인해 궁궐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꼽힌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던 경복궁은 고종 때인 1867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도 다시 세워졌다. 중건된 경복궁은 처음 지어졌을 때보다도 규모가 훨씬 컸다. 그러나 정전과 누각 등 주요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원 사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비록 많은 건물들이 없어지긴 했으나 처음 지어진 자리에 있는 법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경복궁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 의식을 거행하고 여러 왕들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근정'이란 이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복궁 경회루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운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경복궁을 처음 지을 때의 경회루는 작은 규모였으나, 연못을 넓히며 다시 크게 지었고, 그 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들기둥만 유지되어 오다가 1867년(고종 4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회루도 다시 지었다.

Tip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조선 시대 수문장은 흥인문, 송례문 등 도성문과 경복궁 등 국왕이 생활하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였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재현한 수문장을 광화문 앞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사적로 161
02-3700-3900
사진 ©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종묘

조선의 선왕들을 모시는 사당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의 왕과 왕비,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1394년(태조 3년)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되었다. 유교에 뿌리를 둔 조선왕조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유교의 예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일이었기에 태조 이성계는 종묘를 가장 먼저 지었다. 이는 종묘가 국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신성한 곳이었음을 의미한다.

제한 공간의 중심인 종묘 정전^{국보}은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단일 목조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처음 지었을 땐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옆으로 점점 늘어 현재에 이르렀다. 별도의 사당인 종묘 영녕전^{보물}은 태조의 선대 4조와 정전에서 불안되지 않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간결하고 담백한 건물에서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종묘제례^{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라고 한다. '대제(大祭)'라고도 부르는 종묘제례는 엄격한 유교 절차에 따라 장엄하게 진행된다. 이때 연주되는 음악은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연주, 노래, 무용이 어우러져 있는 이 음악은 완전하게 전해지는 왕실의 제사 음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종묘 정전은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모셨으나, 그 후 당시 재위하던 왕의 4대조(고조, 증조, 조부, 부)와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궁궐에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되었다. 종묘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과 함께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한 제례 공간이다.

종묘 영녕전은 종묘의 일부로 정전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녕전은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이다.

종묘제례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정시제는 4계절의 첫 번째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으나, 해방 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 번만 지내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종묘제례악은 본래 1447년(세종 29년)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1464년(세조 10년) 제사에 적합하게 고친 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Tip 종묘대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종묘대제가 열린다. 엄격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영녕전 제향, 어가행렬, 정전제향 등이 이루어지는데, 경건한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종묘제례악도 연주된다.
* 일정은 한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Tip 종묘제례악 궁중문화축전 기간에만 열리는 종묘제례악 야간 공연은 장엄한 종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종묘제례악'의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Tip 종묘 묘현례 조선시대 세자빈이 혼례를 치른 후 왕비와 함께 처음 종묘를 참배하는 의례이다.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했던 유일한 행사로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매해 봄과 가을 재현행사를 볼 수 있다.
* 일정은 한국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서울 종로구 종로 157
02-765-0195
사진 © 한국문화재단

수원 왕가의 길 1

82

수원 화성

조선의 독창적인 계획도시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제22대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최고의 명당이었던 수원 화산(현재 경기도 화성)으로 옮겼다. 화산 주변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제공하고 당쟁 근절 및 왕도정치 실현을 위해 1796년(정조 20년) 팔달산 아래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곳이 바로 수원 화성이었다.

정조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실학자 정약용의 설계와 문신 채제공의 감독으로 축성된 수원 화성은 거주지 기능과 방어 기능, 상업기능이 합쳐진 성곽도시였다.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건축술이 총동원된 이 계획도시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이다. 주변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어진 성곽에는 공심돈, 포루, 노대, 봉돈, 암문 등의 시설이 방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벽돌로 만든 요새임에도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을 풍기는 이유는 전면에 반원 모양의 옹성을 축조한 수원 팔달문^{보물},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주고 방어적 기능까지 갖춘 화홍문, 군사지휘소 겸 휴식공간인 수원 방화수류정^{보물} 등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덕분이다. 특히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세워진 방화수류정 (동북각루)은 수원 화성에서 가장 빼어난 건물로 꼽힌다.

성 안에는 수원 화성행궁^{사적}이 자리하고 있다. 행궁은 왕이 궁궐 밖을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무는 궁궐을 말하는데, 화성행궁은 전국의 행궁 중에서도 규모와 격식, 활용도 면에서 으뜸이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에 행차할 때 머물기 위한 처소였지만 평소에는 관청으로 사용했다. 화성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에서는 1795년(정조 19년)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거행되기도 했다.

수원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쪽 문으로 문의 바깥쪽에는 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해 반원 모양으로 옹성을 쌓았는데 이 옹성은 1975년 복원공사 때 고증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문의 좌우로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철어버려 지금은 성문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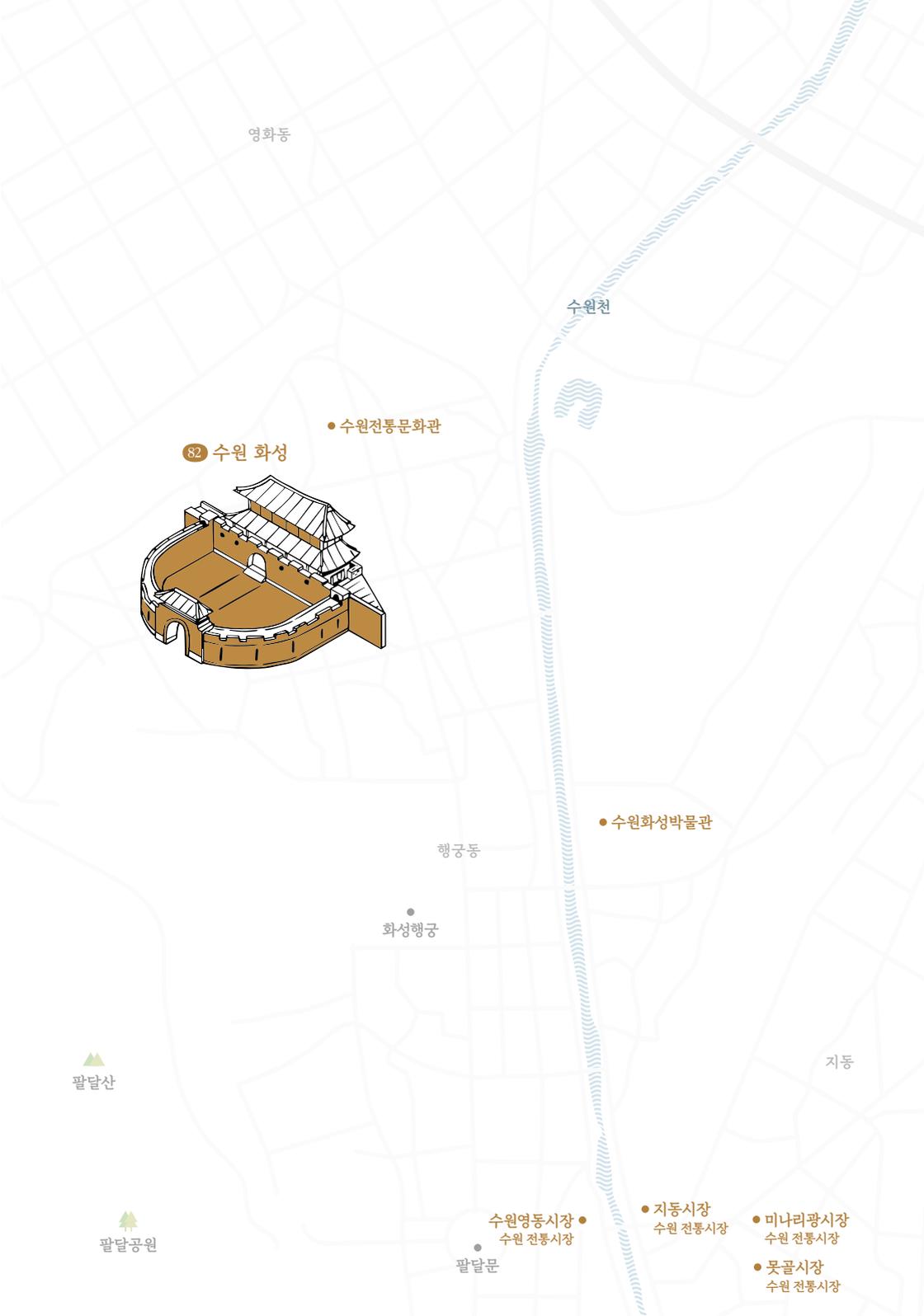
수원 방화수류정 1794년(정조 18년)에 건립되었으며, 화성의 동북각루인 방화수류정은 전시용(戰時用) 건물이지만 정자의 기능을 고려해 석재와 목재, 전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성된 건물이다. 1848년(헌종 14년)에 중수되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수리되었다.

수원 화성행궁 1789년(정조 13년) 수원읍을 화성시 안남면 일대에서 팔달산 아래로 옮겨 오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왕이 수원에 내려오면 잠시 머무는 행궁으로도 사용되었다. 화성행궁은 1909년부터 수원 주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쓰이면서 건물이 철거되어 낙남현만 남아 있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031-290-3600
사진 © 한국문화재단



참 만남 참 문화유산



화성 왕가의 길 1

85

화성 용릉과 건릉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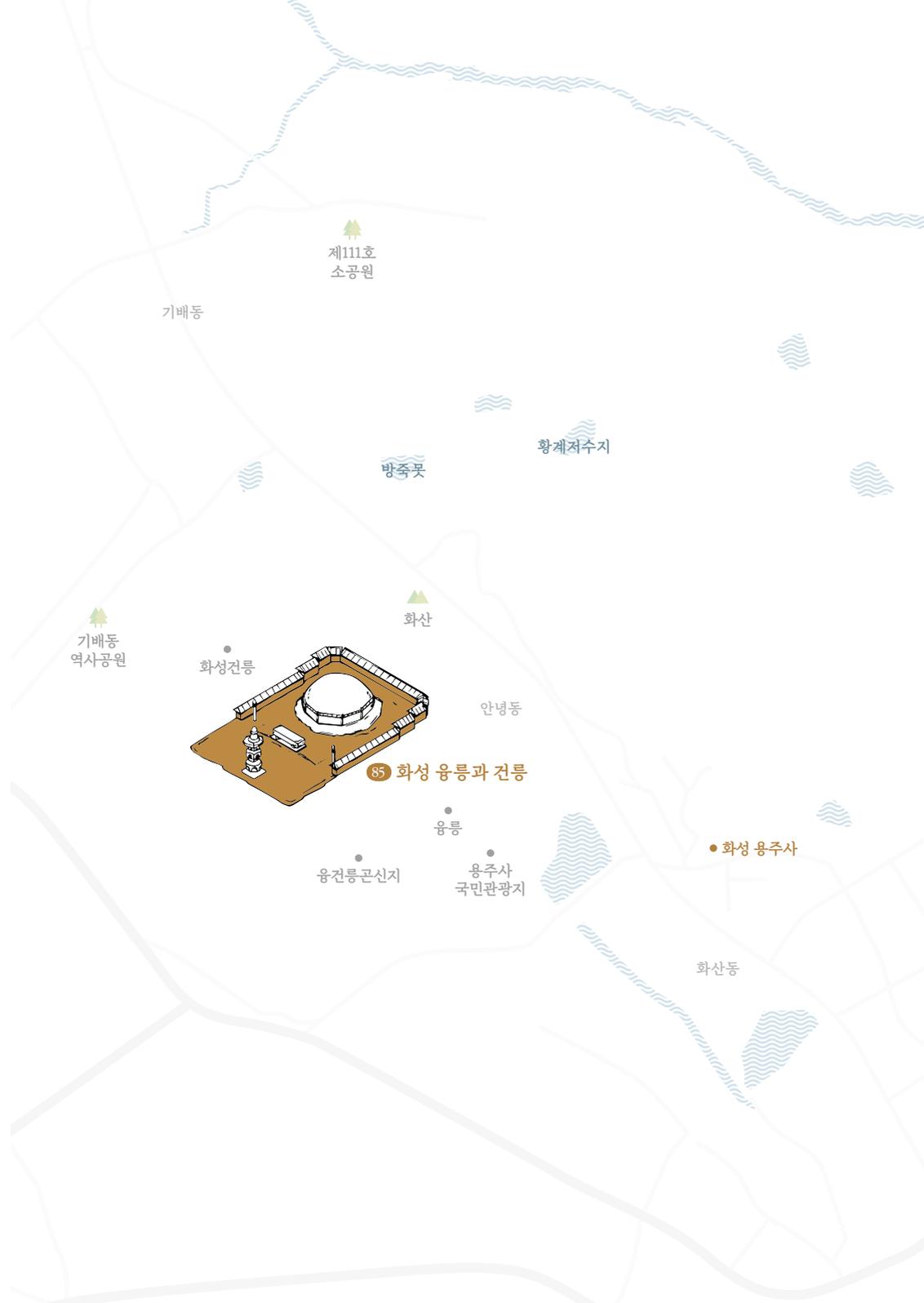
조선 제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는 당쟁에 휘말려 27세의 나이에 뒤주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개칭한 뒤, 배봉산 기슭에 있던 무덤을 1789년(정조 13년) 지금의 경기도 화성으로 이장했다. 당시에는 현릉원으로 불렸지만, 1899년(고종 36년)에 '장조의 황제'로 추존되어 용릉으로 승격되었다. 남편과 함께 합장되었던 혜경궁 홍씨도 '현경의 황후'로 추존되었는데, 추존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임금의 칭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선 최고의 명당에 조성된 용릉은 추존왕이라는 사실에 무색할 정도로 장중하고 화려하다. 봉분 아랫부분에는 연꽃 문양이 조각된 섬세한 병풍석을 둘렀고, 능 앞에는 팔각형과 사각형의 석등 양식을 결합한 장명등을 세웠다. 묘역의 불을 밝히는 장명등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 장명등은 조선 왕릉에 있는 장명등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다. 용릉 서쪽 울창한 숲길 너머에는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릉인 건릉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용릉 동쪽에 있었으나, 풍수지리상 그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1821년(순조 21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봉분에 난간석만 둘렀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용릉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하다.

능 입구로 들어가서 건다 보면 두 개의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은 용릉으로 이어지고 왼쪽은 건릉으로 이어진다. 매년 4월에는 용릉 제향이, 5월에는 건릉 제향이 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빼곡한 숲길은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Tip 정조의 능행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능행(陵幸)을 했다. 능행이란 왕이 친히 능에 행차하는 것을 말한다. 정조의 능행길은 단순히 참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릉원(용릉)에 갈 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며 여러 행사를 거행했고, 백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했다.

경기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031-222-0142
사진 ©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왕가의 길 2

강화 · 김포 ·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삼면이 한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김포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 강화도로 이어지는 길은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다. 조선의 첫 번째 궁궐, 왕의 영혼을 모신 사당, 왕의 육신이 잠들어 있는 능, 실록을 보호한 사찰, 청동기 시대의 무덤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 교동도
강화 나들길

장정리
강화자연사박물관 ●
강화역사박물관 ● 86 강화 고인돌 유적



상주산

고려산

● 김포 문수산성

문수산

● 석모도
강화 나들길

● 강화도
강화 나들길

해명산

양도면

● 김포 덕포진

대곶면

양촌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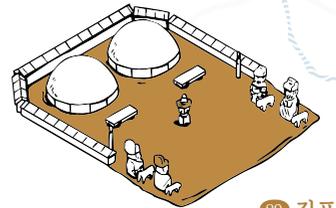
강화 삼랑성 ●

강화 전등사 87

● 김포 대명항

● 강화 초지진

마니산



89 김포 장릉

강화 전등사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

강화도에는 단군과 관련된 장소가 있다. 하나는 마니산이고 다른 하나는 강화 삼랑성^{사적}이다.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의 수도 개경과 조선의 수도 한양의 외곽 방어 기능을 담당했다.

삼랑성 안에 위치한 전등사는 강화를 대표하는 사찰로, 381년(소수림왕 11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이름은 진종사였으나 고려 때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는 뜻의 전등사로 바뀌었다. 이후 몇 차례의 화재를 겪으며 건물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625년(인조 3년)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지만 전등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았다. 정족산성 안에 조선왕조실록^{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있었는데, 전등사가 실록을 보호하는 수호사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인 1871년(고종 8년)에는 이곳에 무기와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었고, 이듬해에는 50명 승군(僧軍)을 두기도 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에는 귀중한 문화재가 많다. 유려한 곡선과 화려한 장식이 고풍스러운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중국에서 건너온 전등사 철종^{보물}, 조각 수법이 뛰어난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등이 대표적이다. 전등사 서쪽에는 실록을 보관하던 강화 정족산사고지^{민천광역사 기념물}가 있다.



강화 삼랑성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 삼랑성이라 부른다. 삼랑성은 1660년(현종 1년) 마니산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성 안에 있는 정족산사고로 옮기고,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을 함께 지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없어지고 전등사만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편년체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규정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사고본을 기준으로 볼 때 완질 분량이 1,187책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다.

강화 전등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불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은 1621년(광해군 13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모서리 기둥 윗부분에는 사람 모습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사를 맡았던 목수의 재물을 가로챈 주묘의 나쁜 짓을 경고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 발가벗은 모습을 조각하여 추후를 방지해 줬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

전등사 철종 일제강점기 말 금속류의 강제 수탈 과정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철종으로서 광복 후 부평 근기장에서 발견하여 전등사로 옮겨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형태와 조각 수법에서 중국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춘 종으로 한국의 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7세기 전반에 전북, 충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1623년에 조성한 불상으로,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삼세불의 도상을 보이고 있다.

강화 정족산사고지는 정족산성 안 전등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성내에는 수호사찰인 전등사가 사고를 보호해왔기에 1910년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실록과 서적들이 옮겨질 때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사진 © 전등사

강화 고인돌 유적

청동기 시대의 무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은 몇 개의 받침돌을 고이고 위에 넓적한 돌을 얹은 것을 말한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으로,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부른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에는 4만 기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인돌 가운데 밀집 분포도가 높고 형식이 다양하며 보존 상태가 좋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강화도의 고인돌은 70여 기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크게 탁자식과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탁자식은 땅 위에 판석을 세워 돌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덮개돌을 얹은 것이고, 바둑판식은 땅 아래 판석을 세워 돌방을 만든 다음 땅 위에 조그만 고임돌을 놓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북쪽에서 발견되는 반면,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남쪽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각각의 고인돌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전체 높이가 2.6m, 덮개돌의 길이가 6.5m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2개의 대형 고임돌 위에 얹혀 있는 덮개돌의 무게는 무려 50톤에 달한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부근리 지석묘는 선사 시대의 문화와 기술, 사회구조, 정신세계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사진 © 한국문화재단



김포 장릉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현왕후의 무덤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조선왕릉은 당대의 사상과 장묘문화, 자연친화적 구조와 예술성이 압축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다. 풍수사상을 기초로 한양에서 멀리 않은 곳에 터를 정했는데, 이는 '도읍지의 4대문 10리 밖 80리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법 때문이었다. 대다수의 왕릉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원도 영월과 북한 개성 등 예외적인 장소에 조성된 경우도 있다.

조선왕릉 가운데 '장릉'으로 불리는 능은 총 3기가 있다. 영월에 있는 제6대 단종의 능, 파주에 있는 제16대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 그리고 김포에 있는 원종과 인현 왕후의 능이 그것이다. 김포 장릉의 주인인 원종은 제14대 선조의 아들이자 제16대 인조의 아버지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신 공로로 호성공신이 되었으나 1619년(광해군 11년)에 세상을 떠났다.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 대원군에 봉해졌고, 1632년(인조 10년) 논란 끝에 왕으로 추존되었다.

장릉산 자락에 자리한 김포 장릉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원종, 오른쪽이 인현 왕후의 능이다. 추존된 다른 왕릉의 전례를 따라 봉분 아랫부분에 병풍석이나 난간석이 설치하지 않았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이 조선왕릉의 특징인데, 이곳 역시 아름다운 풍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 사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천년 정신의 길

경주 · 안동



대한민국 정신을 걷다

우리는 거대한 유적에 압도되고, 오래된 건물에 감동하며, 정교한 유물에 감탄한다. 흥겨운 가락에 들뜨는가 하면, 신나는 놀이에 흥분하기도 한다. 길어야 백 년 정도 살 수 있는 인간은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일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호하고 있다. 아득한 세월을 이겨냈다는 점만으로도 오래된 것들은 특별하다. 그러나 문화유산 앞에서 감정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문화는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은 유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유산에도 반영된다. 그렇기에 유무형의 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장소를 둘러보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을 더듬어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신비로운 여정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도시가 있다. 천년고도 경주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문화유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1

경주 계림

92

경주 대릉원 일원

93

경주 불국사

94

경주 석굴암

95

경주 월성

96

안동 도산서원

97

안동 봉정사

98

안동 하회마을

경주 신라로 가는 타임머신

천년 왕국 신라는 수도를 단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읍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경주에 신라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현재진행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땅을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지하 2층 이상은 파지도 못한다는 말이 경주에선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새로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신라가 다시 땅을 걸어들 가능성은 뜻한다. 그렇기에 경주는 언제나 새롭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문화유산을 만나는 것이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경주 신라로 가는 타임머신

91

경주 계림

신라의 시조가 탄생한 신성한 숲 사적

고목이 울창한 경주 계림은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는 작은 숲이다. 신라는 박, 석, 김의 세 성(姓) 씨가 번갈아 가며 왕위에 올랐는데, 김 씨의 시조가 김알지다.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경주 계림은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시작된 곳으로, 『삼국사기』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한밤중에 금성 서쪽에 있는 숲에서 닭이 우는소리를 들은 탈해왕은 날이 밝자 그곳으로 호공이라는 신하를 보냈다. 숲에 다다른 호공은 금빛 껍질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아래서 흰 닭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탈해왕은 껍질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안에는 사내아가기가 있었다. 하늘이 그에게 아들을 내려보겠다고 생각한 탈해왕은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름은 알에서 나온 아기라는 뜻으로 ‘알지’라 했고, 성은 금빛 껍질에서 나왔다 하여 김(金) 씨로 했다.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던 이 숲은 본래 시림(始林)이라 불렸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 계림(鷄林)으로 불렸는데 이는 ‘숲에서 닭이 울었다’는 뜻이다.

경북 경주시 교동 1

Tip 박 씨와 석 씨의 시조 박 씨의 시조는 박혁거세이고 석 씨의 시조는 석탈해이다.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인물이고 석탈해는 신라 제4대 탈해왕이다. 두 사람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출생 설화를 가지고 있다.

92

경주 대릉원 일원

신라의 거대한 고분군 사적

경주 시내 곳곳에 솟아있는 23기의 신라 고분들은 대릉원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워낙 넓은 부지에 조성된 탓에 황남대총, 천마총, 경주 미추왕릉을 먼저 둘러보는 것이 좋다. 신라 고분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황남대총은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남·북으로 2개의 봉분이 표주박 형태로 붙어 있는 이곳에선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남대총 남분 금목걸이(국보),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국보) 등이 있다. 발굴 당시 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천마총은 고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유물 중에 하늘로 비상하는 천마(天馬)를 그린 장니(障泥: 말 옆구리 양쪽에 늘어뜨리는 마구)가 있어서 천마총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국보)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신라 회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경주 미추왕릉은 신라 제13대 왕이었던 미추왕의 능으로 그는 신라 최초의 김 씨 왕이며, 김 씨의 시조 김알지의 7대손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에는 미추왕을 대릉(大陵)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릉원’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황남대총 남분 금목걸이 황남대총 남쪽 무덤에서 사람의 목에 걸린 채로 널(棺) 안에서 발견되었다.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목걸이 끝부분에 푸른빛의 굵은 옥을 장식한데 반하여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끝부분에도 굵은 옥 형태의 금으로 장식한 독특한 목걸이다.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황남대총의 북쪽 무덤에서 발견된 금 허리띠(과대)와 띠드리개(요패)로 28장의 띠(緋)으로 만들어진 이 허리띠는 주위의 작은 구멍들로 보아 가죽 같은 것에 꿰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니에 그려진 말(천마)그림이다. 천마도에 그려진 말과 테두리의 덩굴무늬를 보면 고구려 무용총이나 고분벽화의 무늬와 같은 양식으로 신라 회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Tip 대릉원 돌담길 대릉원 후문 쪽에서 돌담을 따라 500여 미터를 걷다 보면 대릉원 정문에서는 봄에 벚꽃터널이 만들어진다.

95

경주 월성

반달을 닮은 성 사적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도성이다. 『삼국사기』에 101년(파사왕 22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금성에서 월성으로 도성을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문무왕 때에는 안압지·임해전·첨성대 일대가 편입되어 성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 역대 왕들의 궁성이었던 이곳은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 또는 ‘신월성’이라고 불렸는데, 왕이 계신 곳이라 하여 ‘재성(在城)’이라고도 했다. 절벽이 있는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은 흙과 돌을 쌓았고, 성벽 밑으로는 방어시설인 해자가 있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인공적으로 둘러 파서 물이 흐르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원래는 여러 개의 문과 누각들, 관청 건물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없어졌고, 경주 동궁과 월지로 통했던 문터와 월성 서쪽에서 옮겨 온 경주 석빙고만 남아 있다.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91 경주 계림 | 사진 © 한국문화재단



92 경주 대릉원 일원 | 사진 © 한국문화재단



95 경주 월성 | 사진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불국사

땅 위에 옮겨놓은 부처님의 나라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불국사는 경주의 자랑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불국(佛國)'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신라인들이 그리던 이상적인 세계를 땅 위에 옮겨놓은 공간이 바로 이곳 불국사다.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1038년)』에 따르면 불국사는 752년에 창건되었다. 기술과 감각이 빛낸 각각의 건축물에는 불교의 세계관이 녹아 있다. 불국사 경내는 석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래는 인간 세계이고 위는 부처님의 나라이다. 이 석단에는 대웅전을 향하는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국보}가 있는데 인간세계와 부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청운교와 백운교는 밑 부분에 아치형 통로를 만들어 놓아서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인상을 준다. 옆쪽에 있는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국보}도 계단과 다리가 결합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극락이 연화와 칠보로 장식되어 있다는 불경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다리는 극락세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곳이라 전해진다. 경내 중앙에는 경주 불국사 대웅전^{국보}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과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이 배치되어 있다. 불교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두 탑은 석가여래가 설법하고 다보여래가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장식성이 돋보이는 다보탑에선 수려한 개성이, 비례감이 돋보이는 석가탑에선 균형 잡힌 안정감이 묻어난다. 두 탑의 창의적인 조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경주 석굴암

종교와 과학,
기술과 예술이 빛어낸 걸작
국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경덕왕(재위 742~765년) 때 창건됐다. 경주 불국사와 동시에 짓기 시작해서 774년(혜공왕 10년)에 완성되었는데, 당시의 이름은 '석불사'였다.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바위를 뚫어서 만든 석굴과는 달리, 석굴암은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지어진 인공적인 석굴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가 입구인 전실과 원형의 주실을 연결하고 있다. 직사각형의 전실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엔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중이 조각되어 있다. 통로 입구에는 수문장인 금강역사가, 벽면에는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통로 너머의 주실은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한다. 완벽한 균형미와 공간미를 자랑하는 동형 천장 아래엔 불교조각의 걸작으로 칭송받는 본존불(석가여래좌상)이 있다. 신비로운 위엄과 부드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본존불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신라 장인들의 기교와 신앙심의 깊이를 보여준다.

경북 경주시 불국로 873-243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청운교(靑雲橋)를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白雲橋)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빚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창건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오르내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였고, 비구니가 된 신라 현강왕비도 이곳을 오가며 왕의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전해진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창건 당시 기단과 석등 등의 석조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유구 위에 1765년(영조 41년)에 중창된 건물로 중창 기록과 단청에 대한 기록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자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지만 안타깝게도 1925년 경 일제에 의해 완전히 해체, 보수되면서 탑 속의 유물들도 사라지고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돌계단 위에 놓여있던 돌사자들도 약탈되어 현재는 4마리 중 1마리만 남아있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살법탑'이다. 1966년 도굴꾼들에 의해 손상된 탑을 수리하면서 탑 속에서 여러 유물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을 발견하였다.

Tip 석가여래 불상은

불타(佛陀), 보살(菩薩), 나한상(羅漢) 등으로 나누어진다. 불타는 여래(如來)라고도 하는데, 이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석가여래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경주 석굴암 석굴의 중심에 있는 본존불은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석가여래좌상'이라 부른다.



93 경주 불국사 | 사진 © 한국문화재단



94 경주 석굴암 | 사진 © 경주시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경주 동궁과 월지

신라의 왕자가 머물렀던 별궁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의 왕자들이 살았던 별궁 터이다. 674년(문무왕 14년)에 큰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3개의 섬과 못 북동쪽으로 12 봉우리의 산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전해진다. 3개의 섬은 전설 속의 산인 해중선산(海中仙山)을, 12봉우리는 중국의 명산인 무산(巫山)의 12개 봉우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궁에 있는 '임해전'은 군신들의 연회와 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별궁이었음에도 신라 사회에서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 경주시

경북 경주시 원화로 102
054-750-8655

Tip 연꽃단지 경주 동궁과 월지 주변에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 있다. 초록빛 연잎도 싱그럽지만, 만개한 연꽃들이 단아하게 떠 있는 모습은 놓칠 수 없는 장관이다. 이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진 명소이니 개화 시기(7~8월)에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 꼭 둘러보자.

Tip 경주 시내 유적(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시내에 있는 월성지구와 대릉원지구의 유적들은 반경 3km 이내에 모여 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 석빙고

조선 시대의 냉장고 보물

석빙고는 얼음을 넣어두던 창고로, 일종의 천연 냉장고다.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이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서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시대부터인데, 비고전(氷庫典)이라는 관아에서 얼음 창고를 관리했다. 이는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 국가적인 제도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석빙고들은 모두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중 규모와 기법이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경주 석빙고다. 처음엔 신라 시대의 석빙고로 알려졌지만 1738년(영조 14년)에 축조한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석빙고는 얼음이 녹지 않도록 지하에 만들어졌는데, 경주 석빙고 역시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돌벽으로 둘러싸인 창고의 천장에는 3개의 환기 구멍이 있고, 경사진 바닥 중앙에는 배수구가 있다. 전자는 더운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후자는 얼음 녹은 물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석빙고 바깥쪽에는 흙을 쌓고 잔디를 심었는데, 이는 습기와 햇빛을 막아주어 한여름까지 얼음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진 © 경주시

경북 경주시 인왕동 449-1

경주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구조

경주 첨성대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의 천문관측대이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는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학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나라의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과도 연결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사였다. 술병처럼 생긴 9m 높이의 천문대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이는 사람이 드나들던 출입구였다. 사다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한국문화재단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Tip 아생화단지 핑크빛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첨성대 옆에 있는 아생화단지를 방문해보자. 9~11월 사이에 피는 거대한 핑크물리 군락은 아련하고 몽환적이다. 인기 있는 사진 명소인 만큼, 분위기가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경주 황룡사지

신라 불교의 중심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 © 경주시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2
054-777-6862

경주 황룡사는 553년(진흥왕 14년) 경주 월성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그곳에 황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찰로 고쳐 지은 곳이다. 24대 진흥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93년에 걸쳐 조성된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찰이었다. 또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신라의 보물 가운데 하나가 황룡사에 있었던 9층 목탑이었는데, 이는 당나라 유행하던 고승 자장의 권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짓기 시작해서 645년에 완공된 목탑은 한 면의 길이만 22미터에 이르렀고 전체 높이가 무려 80미터에 달했다. 아홉 개의 층은 신라 주변에 있던 아홉 국가들을 상징했는데, 이는 외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1238년(고종 25년) 몽골의 침입으로 목탑과 황룡사 건물은 모두 불타버렸다.

한때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지만, 눈길을 끄는 흔적이란 목탑지 바닥에 깔려 있는 넓적한 돌들뿐이다. 이는 목탑의 초석으로, 중심에 위치한 돌이 9층 목탑의 가운데 기둥을 받치던

심초석(心礎石)이다. 넓게 퍼져있는 돌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라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목탑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지 옆에는 황룡사역사문화관이 있다. 이곳에는 황룡사 건립부터 소실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과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모형탑도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 © 경주시

경북 경주시 황남동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불교유적, 왕경(王京)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교토, 나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 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 유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월정교

『삼국사기』에 따르면, 월정교는 760년(경덕왕 19년)에 궁궐 남쪽 문천(蚊川) 위에 놓인 다리였다. 조선 시대에 없어졌던 다리는 조사를 통해 복원했는데, 이 과정은 문루(門樓) 2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밤에 보는 풍경이 특히 아름다워서 야경 명소로 꼽힌다.

경북 경주시 교동 274

황리단길

포석로 일대를 일컫는 황리단길은 옛것과 새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경주의 핫플레이스다.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 이색적인 가게, 게스트하우스, 서점, 사진관 등이 모여 있는 데다가 아기자기한 벽화까지 있어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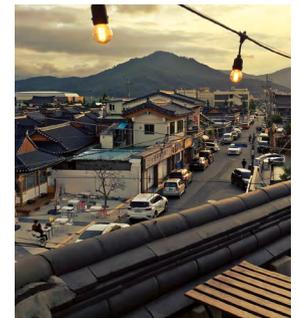


사진 © 경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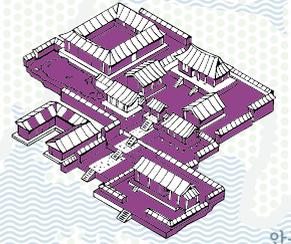
Tip 의복체험 사진 찍기 좋은 황리단길에는 의상을 대여해 주는 곳이 많다. 한복, 교복, 개화기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으면 과감히 시도해보자.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80

안동 유교문화의 거점, 정신문화의 중심

학문과 풍류를 즐기던 선비의 문화와 해학과 풍자가 담긴 민속 문화가 남아 있는 안동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유교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동이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교는 조선시대 국가 통치의 근본이자 사회 윤리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안동을 여행하는 것은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정신의 가치를 배우는 여정이면서 동시에 잊고 있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96 안동 도산서원



안동호

학가산



안동 봉정사 97

북후면

안동군자마을

와룡면

안동호



안동 체화정

하지산

소산리

경상북도청

가곡리

갈전리

하리리

낙동강

마애리

98 안동 하회마을

• 하회세계탈박물관

화산

• 부용대

•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 안동 병산서원

• 안동 하회 충효당

광덕리

시루봉

하아리

안동역

낙동강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월영교

•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안동시립민속박물관

• 유교랜드

• 안동 운동동 오층전탑

벼들섬

안동 유교문화의 거점, 정신문화의 중심

96

안동 도산서원

영남 유학의 중심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에서 배출한 걸출한 인재 중에는 성리학을 체계화한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이 있다. 서른네 살 때 과거에 합격한 이후로 4명의 임금(중종, 인종, 명종, 선조)을 섬겼던 그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1561년(명종 16년) 도산서당을 지었다.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학력을 추모하는 문인과 유생들이 서당이 있던 자리에 서원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동 도산서원이었다.

안동 도산서원은 건축 구성으로 볼 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 구역으로 나뉜다. 도산서당은 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황이 직접 설계하고 지었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옆에 있는 농운정사도 이황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선 잘 짓지 않았던 공(工) 자 형태의 이 건물은 제자들의 기숙사로,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이황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황의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된 도산서원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이황의 위패를 모신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복불}과 서원의 강당인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복불}이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도서관에 해당되는 광명실, 인쇄소 역할을 하는 장판각 역시 흥미로운 장소들이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자세한 내용은 <서원의 길> 참고
→ p.76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도산서원 제일 뒤쪽에 있는 상덕사는 퇴계 이황(1501~1570) 선생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1574년(선조 7년)에 지어졌고, 지금 있는 건물은 1969년 수리한 것이다.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유생들의 자기 수양과 자체들의 교육을 위한 강당으로서, 전교당의 앞 마당 좌우에는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다.

Tip 조선의 특별시험 '도산별과'
퇴계 이황은 유생들은 물론 자신이 섬겼던 왕들에게도 지극한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에 대한 공경과 예우는 후대까지 이어졌는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는 이황의 학덕과 유언을 기리기 위해 1792년 특별 과거시험을 신설했다. '도산별과'라 불린 이 시험은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유일하게 지방에서 본 대과(大科)였다. 원래는 안동 도산서원에서 치르려 했으나 만에 명에 가까운 유생들이 물리는 바람에 지금의 시사단(試士壇)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안동에서는 매년 도산별과 재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97

안동 봉정사

봉황이 머무른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등산에 자리한 봉정사는 672년(문무왕 12년)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봉정(鳳淸), 즉 봉황이 머무른다는 뜻을 가진 이 사찰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하다는 느낌을 준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사찰의 입구에 해당하는 봉정사만세루^{시도유형문화재}를 지나면 곱스러운 전각들이 모여 있는 경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곳의 전각들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봉정사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은 목조건축의 계보를 훑어보는 것과 같다.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각으로는 극락전과 대웅전이 있다. 두 전각은 각각 마당을 갖춘 구조로 형성되어 각각 석가 신앙과 미타

신앙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본받았고, 안동 봉정사 대웅전^{국보}은 고려 말·조선 초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다. 스님들이 불교의 기초 교학을 배우는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복불}과 불상을 모시는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안동 봉정사 고급당^{복불}도 다양한 건축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자세한 내용은 <산사의 길> 참고
→ p.68

봉정사만세루 봉정사 대웅전 앞에 있는 2층의 누각 형태를 한 누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도력으로 만든 종이 봉황을 부석사에서 날리자 이곳에 내려앉아 봉정사라 불렀다고 한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원래 대장전이라고 불렸으나 뒤에 이름이 바뀌었다. 1972년 보수공사 때 1363년(공민왕 12년)에 지붕 수리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전통 목조 건물의 통상적인 수리 시기가 건립 후 100~15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1200년대 초 건립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봉정사 중심 법당인 대웅전에는 석가모니삼존상이 모셔져 있는데 1962년 해체·수리 때 발견한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전기 건물로 추정한다. 건물 안쪽에는 단청이 잘 남아 있어 이 시대 문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은 스님들이 불교의 기초 교학을 배우는 곳이다. 『양법당중수기』 등의 기록에 따르면 같은 경내에 있는 극락전과 대웅전을 17세기께 고쳐 지었을 때 화엄강당도 함께 고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문화재이다.

안동 봉정사 고급당 극락전 앞에 동향(東向)으로 서 있으며 원래 불상을 모시는 부속 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승려가 기거하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1969년 해체·복원공사 당시 발견한 기록에 1616년(광해군 8년)에 고쳐 지은 것을 알 수 있을 뿐 확실하게 언제 세웠는지 알 수 없다.



96 안동 도산서원 | 사진 © 한국문화재단



97 안동 봉정사 | 사진 © 안동시

안동 하회마을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씨족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춘 하회마을은 풍산 류 씨의 씨족마을이다.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데서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600여 년 동안 류 씨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엔 유교 전통과 민속 문화, 조선 시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의 유학자 류운룡과 임진왜란의 공신 류성룡 형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으로는 풍산 류씨의 대종가(大宗家)이자 류운룡의 집이었던 안동 하회 양진당**보물**, 류성룡의 종택인 안동 하회 충효당**보물**, 마을 북쪽 99칸 집으로 불린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등이 있다.

600년 된 삼신당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뻗어있는 골목을 누비는 것이야말로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낙동강 백사장도 빼놓지 말아야 할 장소다. 느릅은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부용대의 절경은 자연을 감상하며 시를 읊었던 선비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만든다.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하회마을에는 두 개의 전통놀이도 전해진다. 양반들의 놀이인 하회선유줄불놀이와 서민들의 놀이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가 바로 그것이다. 매년 음력 7월 16일 밤이 되면 양반들은 보름달 아래서 시와 가무가 함께하는 뱃놀이를 했는데, 여기인 불놀이가 결들여졌다. 부용대 정상부터 하회마을 만송정 숲까지 줄을 걸고, 그 위에 수백 개의 숯가루 봉지를 매달아 공중 여기저기서 작은 불꽃들이 터지게 했다.

낙동강으로 떨어지는 불꽃의 장관을 즐기는 하회선유줄불놀이는 풍류의 전형이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춤으로 알려져 있다. 별신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에게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하회마을에서는 500년 전부터 10년에 한 번 보름달이나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신굿을 해왔다. 이때 서낭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탈놀이도 했는데, 불교의 타락상, 양반에 대한 신랄한 풍자, 서민들의 애환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중기길 2-1

안동 하회 양진당은 겸암 류운룡(1539~1601)의 집으로 매우 오래된 풍산 류씨 종가이다. 입암 류중영(1515~1573)의 호를 빌어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류중영은 류운룡의 아버지이다. 양진당은 류운룡의 6대손 류영(1687~1761)의 어릴 때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안동 하회 충효당 조선 중기 이름난 문인이었던 서애 류성룡(1542~1607) 선생의 집이다. 류성룡 선생은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치고 임진왜란 때에는 영의정으로 전쟁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많은 공헌을 한 분이다. 선생이 쓴 '징비록,과' '서애집'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은 하회 북촌을 대표하는 규모가 큰 집으로 양반집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본보기로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란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성황)님에게 마을의 평화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각시의 무동, 주지,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과 선비, 혼례, 신방의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탈을 태우며 즐기는 뒤풀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 가면극의 발생과 기원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98 안동 하회마을 | 사진 © 한국문화재단

Tip 하회탈은 양반, 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각시, 총각, 딱다리, 별채탈 등 12개와 주지 2개(동물 형상)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총각, 딱다리, 별채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웃인 병산마을에서 전해오는 2개의 탈과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Tip 이매에게 턱이 없는 이유 이매는 하회탈 가운데 유일하게 턱이 없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의 중심엔 허도령이 있다. 하회마을에 살던 허도령은 신의 계시를 받고 탈을 만들기 시작했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금지였다. 허도령이 마지막으로 이매탈의 턱을 깎고 있을 때, 그를 짝사랑하던 처녀가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허도령은 피를 토하며 죽었고, 이매의 턱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Tip 하회마을을 섰다 하회마을 만송정과 강 건너편 옥연정사 사이에 전통방식으로 세워진 나무다리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겨울철 강물이 적을 때 하회마을에서 이웃 마을을 오가던 수단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개통되어 하회마을과 부용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안동 병산서원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류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을 배향한 곳으로, 배치와 구성면에서 서원의 전형이다. 낙동강 물결이 감싸는 화산(花山)의 양쪽 끝에 안동 하회마을과 안동 병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안동 병산서원은 안동에서 서남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굽어지는 곳에 화산(花山)을 등지고 있다. 병산(屏山)은 빼어난 자연경관이 병풍을 둘러친 듯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만대루(萬代樓) 기둥 사이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가 된다. 지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만대루 위에 올라갈 수 없지만, 크고 우직한 모습의 만대루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만대루의 기둥은 목재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휘어진 모습 그대로의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주춧돌도 다듬지 않은 자연적으로 거칠고 투박하다. 자연을 그대로 옮긴 듯해 인공적이지 않다. 그 정점은 누마루에 오르는 계단에 있다. 커다란 돌마루를 도끼로 서너 곳 쳐서 만든 듯 투박함이 일품이다. 병산서원은 고려 시대 사림의 교육 기관이었던 풍산현의 풍악서당(風岳書堂)에서 기인하였다. 선조(재위 1567~1608) 5년에 서예 류성룡(1542~1607)이 안동으로 옮겨왔다. 병산서원은 양쪽으로 낙동강과 백사장이 있고 주변은 산들이 둘러싸인 자연의 품속에서 공부에 정진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다. 서예 선생이 타계한 후 서예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해 위패를 봉안하였고, 철종(재위 1849~1863) 14년에 '병산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철폐되지 않은 서원 중 하나이다.



사진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자세한 내용은 <서원의 길> 참고
→ p.76

만대루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조선 중기 대표 문신이자 학자인 류성룡과 류진을 모신 병산서원의 누각 건물로 유생들이 유식하고 주변 산천의 풍광을 보며 시회를 가졌던 공간이다. 주요 경관 요소인 병산과 낙동강, 모래를 조망하도록 하여 주변의 탁월한 입지환경을 기반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경관성을 고려하였다. 강학 영역보다 낮게 조성한 대지 위에 절제된 건축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반영한 점이 서원의 본질적 질서체계와 건축 조영원리를 따르면서 병산서원만의 독자적인 입지 선정 및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ip 병산서원 달팽이 병산서원에는 어른 키보다 조금 낮은 높이에 두께는 두 뼘 정도이며 길이는 약 4m쯤 되는 나지막한 진흙 돌덩이 있다. 둥글게 감아 놓은 모양이 달팽이를 닮았다. 이는 370여년 전 서원 건물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일꾼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이다. 출입문은 물론 지붕도 없다. 밖에서 헛기침을 하면 안에서도 헛기침으로 대응해 누군가 사용 중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시스템이다.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천연기념물

만송정 숲은 조선 선조 때 문경공 류운룡이 마을 맞은편 부용대의 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하회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만들어진 넓은 모래 퇴적층 위에 1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조성한 숲이다.

안동 체화정

보물

1761년(영조 37년)에 지어진 정자이다. 체화란 형제의 화목과 우애를 뜻한다. 체화정은 많은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적은 시판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체화정의 연치는 별서 정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상인 신선사상과 음양론, 천원지방설 등의 영향을 받아 방형의 연지와 세 개의 원형 섬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별서정원에서 나타나는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자 앞 연못에는 3개의 인공 섬이 있는데, 신선이 살았다는 세 개의 산을 의미한다. 정자와 연못이 어우러진 멋스러운 풍경이 일품이다.



사진 © 문화재청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23-10

안동 하회 충효당

보물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서예 류성룡(1542~1607)의 집이다. 류성룡 선생은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치고 임진왜란 때에는 영의정으로, 전쟁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많은 공헌을 한 분이다. 선생이 쓴 『징비록』과 『서애집』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사랑채 대청에 걸려 있는 '충효당(忠孝堂)'이라고 쓴 현관은 명필가였던 허목(1595~1682)이 쓴 것이라고 한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9

참 만남 참 문화유산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보물

자연암벽에 몸을 선으로 새기고 머리를 따로 제작해서 올린 특이한 형태의 불상이다. 고려 시대에 많이 제작된 형식으로, 머리 뒷부분이 일부 손상된 것 말고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입 부분에 주홍색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채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 © 안동시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국보

경상북도 안동군 하회마을과 그 이웃인 병산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탈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탈들이 가면이다. 하회탈로는 11개가 전해지는데 주지 2개, 각시, 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부네, 백정, 할미 탈이 있다. 병산탈은 총각, 별채, 떡다리 탈이 있었다고 하나 분실되어 현재 2개가 남아 있다. 한국의 가면은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아서 오래 보존된 예가 드물며, 그 해 탈놀이가 끝난 후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겹 세 겹으로 칠해 정교한 색을 내었다. 턱은 따로 조각되어 있어서, 아래턱을 노끈으로 달아 놓이할 때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함으로써 생동감을 주도록 만들었다. 하회 가면 중에서도 특히 양반과 백정은 입체감과 조각기술면에서 우수함이 돋보인다.



사진 © 문화재청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13
(안동시립민속박물관)
054-821-0649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보물

안동역 구내에 있는 탑으로, 전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안동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전탑이 다소 있는데, 전탑이란 탑이 있다. 병산탈은 총각, 별채, 떡다리 탈이 있었다고 하나 분실되어 현재 2개가 남아 있다. 한국의 가면은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아서 오래 보존된 예가 드물며, 그 해 탈놀이가 끝난 후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원래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는 대위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이다.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번지

함께 둘러보면 좋은 여행지

부용대

안동 하회마을의 서북쪽 강 건너 소나무 숲 옆에 있는 절벽으로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정상에 가면 강물이 마을을 한 바퀴 감싸 도는 독특한 지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안동 하회마을 관광의 백미로 꼽힌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솔밭길 72

유교랜드

유교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테마파크형 공간이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교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학생들과 가족 단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 346-30
054-820-8800

월영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누마다리이다. 다리 한가운데 월영정이라는 정자도 있는데, 낙동강을 두루 조망할 수 있어 사진 명소로도 꼽히며, 대표 야경 명소로 유명하다.

경북 안동시 상야동 569

하회세계탈박물관

하회마을 입구에 있는 탈 전문 박물관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사용되는 하회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탈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탈들도 전시되어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206
054-853-2288

찾아보기

가나다순으로 표기

ㄱ	강릉 경포대	40	ㄱ	속초 신흥사	42	ㅍ	평창 월정사	42
	강릉 선교장	40		수원 화성	128		포천 비둘기낭 폭포	86
	강릉 오죽헌	40		순천 선암사	66		포천아트밸리	88
	강화 고인돌 유적	135		순천 송광사	68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88
	강화 전등사	134					포천 화적연	88
	경복궁	126	ㅇ	안동 도산서원	76, 150		필봉농악전수관	111
	경주 계림	142		안동 병산서원	76	ㅎ	함안 말미산 고분군	32
	경주 대릉원 일원	142		안동 봉정사	68, 150		함양 남계서원	78
	경주 불국사	144		안동 하회마을	152		합천 옥전 고분군	32
	경주 석굴암	144		양산 통도사	68		합천 해인사	70
	경주 옥산서원	74		양양 낙산사	42		해남 대흥사	70
	경주 월성	142		연천 전곡리 유적	84		화성 용릉과 건릉	130
	고령 지산동 고분군	28		연천 호로고루	84			
	고성 송학동 고분군	28		영주 부석사	70			
	고창판소리박물관	108		영주 소수서원	76			
	공주 공산성	50		우수영국민관광지	118			
	공주 마곡사	50, 66		익산 미륵사지	58			
	국립김해박물관	28		익산 왕궁리 유적	58			
	국립남도국악원	114	ㅈ	장성 필암서원	78			
	국립무형유산원	109		정읍 무성서원	7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116		제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96			
	김포 장릉	135		제주 만장굴	96			
	김해 대성동 고분군	30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98			
	김해 수로왕릉	30		제주 서귀포 산방산	98			
ㄴ	남원 광한루원	110		제주 서귀포 쇠소깍	98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0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100			
	남한산성	124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100			
	논산 돈암서원	54, 74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100			
				종묘	127			
ㄷ	달성 도동서원	74						
ㅂ	보은 법주사	66	ㅊ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32			
	부여 나성	54		창덕궁	125			
	부여 부소산성	54		철원 고석정	86			



발행일

2021년 08월 19일

기획 · 제작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콘텐츠실

디자인

시서화 詩書畵 at (주)엔다

본 책자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hf.or.kr/visit

잘못된 정보는 아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십시오.

feelthereal@chf.or.kr

출처가 별도 표기된 사진은 각 표기처에 저작권이 있으며
별도 표기가 없는 이 책의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참 만남 참 문화유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즐기고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으로,
또 나만의 특별한 장소로 문화유산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바람을 담았다.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한국문화재단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